

공군

www.airforce.go.kr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8008



2002

2

통권 제284호

공군본부

C O N T E N T S

지휘봉		3
칼럼		4
공군은 지금		6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9
생각해 봅시다		10
기획특집		11
Air Power		14
세계의 항공기 열전/구 소련		17
비상출격		18
공군 25시		20
Zoom-In		22
공군이 변한다		24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25
만나고 싶습니다		26
독자마당		27
I Love Air Force		28
추억의 사진 한장		30
문화가 현장		34
사이언스 에세이		35
찾아가자 인터넷		36
노래의 날개 위에		38
기지극장		40
마음의 양식		41
마음으로 읽는 글		42
책으로 읽는 세상		43
기상전망대		44
의무상식		46
법무상식		47
이달의 호국인물		48
이달의 문화인물		49
이달의 독립인물		50
우리부대 최고		50
숨어있는 공군을 찾아라		51
장병문예		52
항공계 소식		54
알립니다		54
퀴즈로! 퍼즐로!		55
신간안내		56
		57
		58
		59





참모총장 공군대장 이억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각종 테러 사건은, '안보는 전후방이 따로 없으며,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음은 물론, 안보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국민의 행복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이 새롭게 증대되고 있고,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은 아직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는 가운데, 금년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가 4대 행사가 있는 시기인 만큼, 국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히 수행하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공군이 국가 번영과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늘로-우주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공군 장병이 되어 주기 바라며, 매사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선진공군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기를 각별히 당부합니다.

진실에 투자하라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주철환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 구약성서 잠언 20장 17절

오래 전에 TV에서 본 <베스트셀러 극장> 중에 박완서 원작의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이라는 작품이 있었다. 유산을 둘러싼 암투가 주된 소재였는데 독특한 배경음악이 지금도 귀에 웅웅거린다.

죽은 사람의 영정 앞에서 흐느끼는 곡(哭)을 변주시킨 곡(曲)이었는데 비장감이 아니라 오히려 흥겨운 춤사위가 들쭉여지는 리듬과 멜로디였다. 주인공들이 겉으로는 소리내어 울면서 속으로는 자기 몫의 돈을 계산하느라 주판알을 툇기고 있었으니 그 곡이 제대로 될리가 만무였다.

實

거짓말 하는 사람의 심리는 도박하는 사람의 그것과 닮았다. 이 한판의 거짓말에 내가 소유한 명예와 재산을 걸었을 때 과연 돌아오는 게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계산한다.

여럿이 함께 하는 거짓말은 일종의 공동투자인 셈이다. 그들은 그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잠정적으로 직업까지 바꾼다. 극작가 겸 연극배우가 되는 것이다.

대본을 짜고 그것에 입과 표정을 맞추고 부단히 연습한다.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되는 눈물연기나 심지어 혼절연기까지도 필요하다면 도전해야 한다.

眞

거짓말에 투자하지 마라. 조금의 이익을 지키려다가 더 큰 것을 잃고 스러지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오래도록 지켜보았는가. 그들의 리스트는 역사책에서조차 일목요연하다.

하나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곱 개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고 일찍이 루터가 말했다. 거짓말을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기억력이다. 머리가 좋다고 자부한다면 길게 내다보라. 그리고 진실에 투자하라.

돌아

보니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거짓말은 대체로 귀찮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너 나 싫어하지”라고 묻는 친구에게 “아니, 왜 내가 널 싫어해?”라고 대답했다. 그 친구를 마음으로부터 좋아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를 싫다고 말했을 때 그 후에 다가올 자잘한 번거로움이 더 싫었던 까닭이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를 만날 때 서로가 겪게 될 불편함, 혹은 그에게 주게 될 작은 상처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 것 같았다.

군대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훈련병 시절 나는 이미 대학원을 마친 상태여서 나이가 스물하고도 여섯이었다. 다만 머리를 깎은 후 외모는 그냥 스무 살 정도여서 장난스레 짐작대는 선임병이 많았다. “네 누나 좀 소개해 줘” 이런 식이었다. 그렇게 요구하는 병사가 오히려 내 동생뻘이었는데도 나는 귀엽게(?) 웃으며 - 역시 거짓말에는 연기가 필수적이다 - “훈련 끝나면 소개해 드릴게요”라고 말하여 훈련기간을 편하게 지냈던 기억이 난다.

연예인

들의 거짓말 중에는 애교스런 것도 많다. 서로 깊이 사귀면서도 누가 그것을 확인하려 하면 정색을 하며 내빼기 일쑤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냐고 따질지 모르지만 난 도리어 인지상정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만약 내가 저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처신할까”라는 물음에 스스로를 대입시켜 본다면 그 행위가 눈감아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은 병균과 같다. 하나의 거짓말은 분명 또 다른 거짓말을 생산한다. 빈곤이 악순환 되듯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마침내 거짓에 연루된 모든 이들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거짓말

에 투자하지 마라. 조금의 이익을 지키려다가 더 큰 것을 잃고 스러지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오래도록 지켜 보았는가. 그들의 리스트는 역사책에서조차 일목요연하다.

하나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곱 개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고 일찍이 루터가 말했다. 거짓말을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기억력이다. 머리가 좋다고 자부한다면 길게 내다보라. 그리고 진실에 투자하라. ⚡

R.O.K.



- 1 공군 예비역·현역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개최
- 2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관한 이억수 참모총장
- 3 '2001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 거행
- 4 '01-3차 고등 비행교육훈련과정 수료 조종사를 격려하고 있는 이억수 참모총장
- 5 '02-2차 중등 비행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여성 조종학생들



Air Force

- 6** 이만섭 국회의장의 위문방문을 받은 제10전투비행단
- 7** 작전사령부에서 열린 미 공군 문선단 '팁스 인 블루' 팀 한·미 장병 위문공연
- 8**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불발탄을 처리하고 있는 제16전투비행단 폭발물 처리반
- 9** 한·미 연합 근접항공 지원작전 전술회의를 개최한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 10** EOD 무사고 출동 500회 기념식을 가진 제8전투비행단



R.O.K. Air Force



11



12



13



14

- 11 SE-88을 이용, 활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제18전투비행단
- 12 발칸포를 이용, 항공기 추적훈련을 실시한 제15훈련비행단 방공포대 장병들
- 13 항공기 소방훈련을 실시한 제15훈련비행단
- 14 격납고 화재대비 항공기 긴급대피훈련을 실시한 제17전투비행단
- 15 신병 부모초청 행사를 실시한 제20전투비행단



15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띤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를 위한 방문한 주창성 공군사관학교장



▲ 6·25 참전용사를 방문, 성금을 전달한 장영수 군수사령관



▲ 성남시장으로부터 자원봉사 유공 최우수상을 받은 제15혼성비행단 이명진 주임원사



▲ 어려운 이웃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 공군사관학교

기대감(期待感)의 위력

공군대학 중령(진) 원 형 건



희랍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조각한 여성상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는데 이 모습에 감화된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 조각상에 생명을 주어 마침내 그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처럼 마음속에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 한다. 누군가의 진실된 기대가 상대의 언동(言動)을 바꾸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의미함이다.

자기성취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도 다름아닌 경우이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마련인데 이 기대에 부응하는 형태로 행동하는 동안 어느새 그 기대가 현실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우리 옛말에도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 하여 정성을 모아 기대하면

하늘이 감동해 소원한 바를 이루어 주신다 하였다.

이 모두가 진정한 기대가 발휘하는 위력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들이다. 기대감은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대를 갖고 사랑을 주면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랑과 기대감은 일개 조각품에도 생명을 불어넣기도 한다.

연초는 보직이동이 빈번한 시기이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역할로 사뭇 어색함과 긴장감이 맴돌지만 서로 나누는 덕담과 악수 속에는 올 한 해도 잘 해 보자는 기대감으로 충만하다. 그러나 내심 충만한 기대감이 정작 중요한 '진실된 마음'이 빠진 한낱 상투적 구호(lip service)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볼일이다.㉠

'생각해 봅시다'에 게재할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작지만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 일상의 모습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공군의 역할과 과제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장 대령 박 충 제

오늘날 국제사회는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갈등과 위협요소들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종교·영토·자원·환경 등의 갈등과 테러리즘·마약·생화학무기 등 새롭게 등장한 위협요소들이 여전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사회는 적과 동지의 구분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에서 보다 다양해진 분쟁에 우리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지난해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은 새로운 위협이 국가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하는지를 보여 주었던 좋은 사례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국경선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분쟁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에는 냉전의 구도가 소멸되었지만 아직도 한반도에는 냉전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냉전의 잔재 속에서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표출되는 여러 위협들에 대비해야 할 위치에 서 있다. 우리는 보다 불확실해진 위협의 주체와 다양해진 위협의 요소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2002년과 튼튼한 안보

2002년 한 해는 튼튼한 안보를 더욱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올해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인 4대 주요행사들이 안

전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두 대회는 국가간 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 민간외교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의 대표와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이러한 4대 행사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위협과 도전들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되고 예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전한 환경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북한이라는 전통적인 안보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들의 대남 침략의지를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테러 위협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태이다. 많은 수의 정규군뿐만 아니라, 테러 요원, 생화학무기의 대량 생산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공격능력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테러와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안전의 위협은 잠재되어 있다. 미국에서의 9·11 테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일거의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협은 대규모 희생을 가져오는 사건뿐만 아니라, 경기장이나 행사장의 질서나 안전의 유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1세기 신국방’과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우리 군은 지난 해 다양해진 위협과 변화된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세기 신국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21세기 신국방’은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는 모든 형태의 위협과 모든 행위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대비를 의미한다. 이는 군사적 위협은 물론 비군사적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은 가장 명확하게 인식되어 왔던 전통적인 위협세력이다. 이러한 위협은 적절한 대비를 못할 경우에 그 결과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영역이다. 또한 북한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지도발이나 테러행위들도 역시 그러한 위협으로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웅산에서의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행위나 김현희에 의한 민항기 테러역시 북한이 보여 주었던 위협들이었다. 또한 세계적인 시선이 집중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조직들의 활동도 예상될 수 있다.

불특정 세력에 의한 테러나 범죄행위 등도 대비해야 할 주요한 위협이다. 미국의 탄저균 테러는 명확치 않은 세력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 군은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의 대상자로부터 전면전이나 국지도발이라는 형태의 위협에 주로 대비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군은 정규전이나 국지전의 위협은 물론 생화학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군의 대비태세를 발전시켜야 할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공군의 역할과 과제

우리 공군 역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창의적 사고와 노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군력은 다양한 위협에 융통성 있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방위 대비태세에 기여할 수 있다. 성공적인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는 특정 위협에 대하여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넓은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또는 방법적으로 공군력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화재나 재난으로부터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하여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공군력은 피랍 항공기에 대한 안전조치 및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진입금지 등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VIP 탑승항공기 엄호 및 조계비행을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인질구출 및 대테러 작전에 공중침투자산을 제공하며, 해외에서도 신속한 인도주의 원조활동 및 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전방위 대비를 위하여 공군력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군력이 신속성과 광범위성,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영요원이나 무기체계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군은 다른 군과는 달리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밀 무기체계와 그것을 다루는 요원들과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요원들의 보다 심도있는 지식과 훈련을 필요로 하며, 최선으로 준비된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지금까지의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와 더불어 테러와 같은 도발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공군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빨간 마후라'는 가장 잘 준비된 정예의 임무요원 표시였다.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벽하게 유지하여 전 공군인들이 '빨간 마후라'의 정신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항상 다른 요소들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공군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군력이 신속하고 광범위하

고 다양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공군력을 지원하는 정보능력과 연락체계, 통제체계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공군력을 어느 곳에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형태의 공군력이 가장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형적으로 공군이 수행하여 왔던 영공방위의 임무에서 뿐만 아니라 난민구호나 재난으로부터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상호작용의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한 곳이 있다면 구축해 놓아야 할 것이다.

맺음말

우리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국가적 주요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군은 기동성과 정밀성 그리고 융통성을 지닌 전력으로 최근의 여러 분쟁과 전쟁이 항공력이 중심이 되어 승리를 쟁취한 것을 교훈 삼아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벽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항공우주력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와 노력을 발휘해야 하며, 현대의 다양한 위협들에 대하여 공군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 폭(誤爆)

전투발진단 전쟁연구실



폭격기술의 발달

초기 항공전략사상가들은 제공권을 장악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미래에는 항공력이 전쟁승패를 가름하는 핵심전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폭격의 가공할 파괴력을 공개실험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항공전략사상가 미첼은 1921년과 1923년에 폭격기 MB-2에서 45kg의 폭탄을 투하하여 1차 세계대전시 노획한 독일군함 3척과 미국의 폐기함 3척을 침몰시켰다.

폭격이 이처럼 순조롭게만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전쟁에서 지상의 대공포화를 뚫고 목표물을 공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으며, 야간과 악천후에 정확한 항로를 유지하여 표적에 도달하기까지도 수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폭격기술의 발달은 공중항법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2차대전 초기 폭격기에 부착된 조준기는 망원조준경과 계산기로 구성되었으며, 그것이 비행기의 속도, 고도, 편류에 맞는 적절한 탄도를 산출하였고 조준기와 비행기의 자동조종장치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당시에는 지상의 목표물 한 개를 파괴하기 위해 B-19 폭격기 100대가 650발 이상의 폭탄을 퍼부어야 했으며, 베트남전에서는 F-105 전폭기 95대가 190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항공기 1대가 단 한 발로써 표적을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 폭격의 정확도도 베트남전에서는 400피트였던 것이 지금은 10피트 이내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폭격 정확도 향상은 항공기의 성능 발달과 더불어 무기체계의 발달로 이루어졌으며, 아프간에 대한 대테러전쟁에서는 악천후에도 정확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상레이더와 고해상도 카메라, 적외선 탐지장치와 위성제어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춘

무인정찰기(Predator)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 현장에서 얻은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수천km 떨어진 본토에서 조종하여 전투기 및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한 공격을 할 수 있었다.

오폭의 영향

항공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폭격기술도 발달을 거듭했지만 오폭이라는 문제는 항상 조종사뿐만 아니라 작전계획 수립자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오폭은 전쟁 수행시 자기편 군대 및 민간인 피해라는 예기치 않는 부수적 피해를 야기해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어 전쟁지도부의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코소보전에서도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에 대한 오폭을 포함하여 20회 이상의 오폭이 발생하였고, 미국은 중국대사관 오폭에 대한 배상금으로 중국 정부에 2천 800만 달러(한화 약 323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오폭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항공기 폭격장비 고장이나 정비불량, 폭탄 유도장치의 오작동,



폭격좌표 입력 실수, 부정확한 표적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레이저 유도폭탄은 비, 구름, 안개, 먼지, 불빛, 난기류의 영향을 받으며, GPS 유도폭탄은 위성과 신호가 끊기면 마지막 입력된 좌표를 계산해서 추적하기 때문에 오차가 훨씬 커진다.

오폭은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최근 미국의 대테러전쟁인 아프간 공습에서도 오폭이 발생하여 미군과 더불어 민간인의 피해가 늘어나 전쟁지도부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미래의 전장환경도 도시화에 따른 인구밀집과 이에 따른 도시전투 및 도시 주변에서의 항공작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전에서도 이러한 오폭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오폭과 전쟁의 우연

앞에서 설명한 오폭은 승무원의 실수나 기계적 고장, 자연의 영향 등이지만 전쟁의 우연은 오폭의 결과를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2차대전 당시 미국의 폭격기 편대 전부가 엉뚱한 목표에 폭탄을 투하하는 집단적인 과

오를 저질렀다. 브뤼셀 오폭사건의 조사가 벨기에 주재 정보원을 통해 행해졌을 때 그 사건의 결과는 염려했던 것만큼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독일점령군 사령부는 공원지대나 거기에 인접한 고급 주택지를 부대의 숙소로서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여 공원 전체가 이러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넓은 공원 주변에 대한 오폭으로 벨기에인의 사상자는 극소수였고 독일군 관계자 가운데 사상자가 1,200명이 발생하였으며, 독일군은 이 사건을 미군이 정밀폭격 솜씨를 과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폭 방지를 위한 노력

전쟁에서의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불행한 사건으로서 전후 수십 년 동안 정치적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평시 훈련과 전투임무에서 이러한 오폭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속적인 무기체계 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오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표적정보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임무 중인 조종사에게 전파할 수 있는 실시간 지휘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무기체계가 첨단화될수록 이를 정비하고 운용하는 요원들의 지식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전 충분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정확한 무장투하를 실시함으로써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오폭을 예방해야 한다.

끝으로, 이와 같은 오폭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민에 대한 공군의 신뢰를 더한층 높여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공군인들은 명심하고 오폭 방지에 더욱 노력해야겠다. ④



MiG-29 FULCRUM

전투발진단 무기체계실

미국의 F-14와 F-15에 대항하기 위해 구 소련에서 생산한 전투기로 1977년에 원형기가 첫비행을 실시하였으며, 1983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후 1,300여대가 생산되었다. MiG-29의 기체크기는 미 해군의 F/A-18에 가까우며 F/A-18과 F-16은 최대속도 마하 2에 고정식 공기 흡입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MiG-29는 가변면적 방식의 공기 흡입구를 사용하여 마하 2.3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공중전에서는 고속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목표물까지 도달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요격임무에 맞게 최대속도를 설정한 것이다. 기내 연료탑재량은 기체 사이즈에 비해 작은 편으로 전투행동반경 역시 F-16이나 F/A-18보다 짧다.

노즈 랜딩기어(Nose Landinggear)는 소형 타이어를 2중으로 장착하여 비포장 활주로에서의 활주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흡받이까지 달려 있다. 동체 밑에 낮게 설치된 엔진공기 흡입구는 외부물질에 의한 손상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지상활주시 주공기 흡입구를 닫고 상면의 보조공기 흡입구를 사용하며 이륙시 전방착륙바퀴가 들리면 주공기 흡입구의 문이 열려 공기를 흡입하게 된다. 엔진은 구 소련 최초의 후연기(Afterburner) 부착 터보팬 엔진인 Isotov RD-33으로 추력 대 중량비가 현저히 개선되어 뛰어난 상승률과 가속성능을 유지하게 되었다. 다만 엔진 창정비 작업

주기와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이다.

MiG-29에는 여러 가지 개량형이 존재하는데 초기 단좌형 Fulcrum A, 전환 훈련용인 복좌형 MiG-29UB Fulcrum B, 동체를 개량하여 연료탑재량을 늘린 Fulcrum C, 그 개량형인 MiG-29S가 실전 배치되었으며, 대폭적으로 개량한 MiG-33(MiG-29M), 항모 탑재형인 MiG-29K도 개발되었다. 특히 MiG-29S 시리즈에는 수출형인 SD와 SE가 있으며 레이더에 SAR 모드를 추가하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MiG-29SM도 개발되었다.

레이더는 전투기 정도의 목표물에 대하여 탐지거리가 100km라고 발표되었으며 윈드실드(Windshield) 오른쪽에는 적외선 탐지장치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공대공 사격조준용)가 설치되어 있고 헬멧 마운티드 사이트(Helmet Mounted Sight)와 통합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준시스템은 서방측보다 앞서 있으나 좌석 계기반은 구형 아날로그식이며 HUD 정도가 눈에 띈다. 무장은 스트레이크 내부에 30mm 기관포 1문을 장착하고 있으며 주익 아래 6개의 파일런에 능동레이더 유도방식의 AA-9 아모스 장거리 미사일 2발(중거리 AA-10 알라모 2발)과 단거리 A-11 아처 4발이 장착 가능하다. 또한 대지 및 공중공격 점용시는 1,000kg 폭탄 4발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하기도 한다. 1984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 MiG-29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공군을 비롯 인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라크, 시리아, 쿠바, 북한, 말레이시아, 페루 등에 수출되어 사용되고 있다. ④

▶ 성능 및 제원

- 제작사 : MiG 설계국
- 기고/기장/기폭 : 4.73m/17.32m/11.36m
- 승무원 : 1명
- 엔진 : 2×Isotov RD-33 Turbofan(추력 5,000kg, A/B 8,300kg)
- 최대 속도 : Mach 2.35
- 전투 행동 반경 : 645km(400nm)

여기는 디에고 가르시아, 첫 번째 임무 완료!

- 대테러 전쟁 공군 수송지원단 -

57공수단 중령 고 석 목

디에고 가르시아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이었다. 하프 모양의 유리병 속에 산호 바닷물을 담아 놓은 듯한 모양이었고, 에메랄드 그린빛의 바다색이 주위 바다와 확연히 구분되는 평화롭게만 보이는 조그만 섬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략 폭격기의 전진기지로 보기에는 너무도 조용하고 연약해 보였다. 마치 전쟁터에 끌려와 총기로 무장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전장의 포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상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아주 잘 훈련된, 어른보다 전투에 능숙한 소년병같이 겉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곳이었다. 주기장에는 더 이상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빼곡이 대형 수송기와 전략 폭격기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무장을 한 채 이륙을 기다리는 전폭기의 모습에서는 먹이를 낚아채려는 맹금류의 팽팽한 긴장감마저 느낄 수 있었다. 변변한 관제시설도 없는 오지의 기지임에도 뜨고 내리는 항공기들의 소음은 그치지 않았고, 지상에서 이륙을 준비하는 항공기들의 움직임은 이곳의 분위기를 설명하듯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전장의 최전방에 와 있었던 것이다.

C-130, 인도양의 외딴 섬을 향하다

파키스탄의 이슬라바마드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한 구호물자를 공수한 이후 우리는 본격적인 파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구랍 12월 18일, 57공수단(공군 수송지원단 청마부대) 창단식이 있는 후 우리에게 부여된 첫 임무는 미군 전폭기의 전략적 거점인 인도양

의 조그만 섬, 디에고 가르시아로 보급품을 공수하는 것이었다. 이목이 집중된 첫 임무인데다가 그 동안 많은 해외비행 경력을 자랑하는 우리의 C-130도 처음 들어가는 곳이라 승무원들의 비행준비나 각오는 남달랐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도 미군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고, 우리와 같은 임무를 요구받았으나 디에고 가르시아의 지리적 위치가 인도양 중앙의 외딴 섬이라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무를 거절한 상태였다. 사실,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야 400마일 북쪽에 위치한 간 섬(GAN ISLAND)과 몰디브뿐이라 7시간 이상의 비행 후 회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7시간의 비행 후에도 3~4시간분의 연료량으로 충분히 예비기지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었고 실제 비행시에도 무리 없이 이 구간을 왕복할 수 있었다.



디에고 가르시아의 태극기

임무 목적지인 디에고 가르시아까지의 연료량과 항공기 중량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공수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은 총 10,000LBS (약 4.5톤) 정도였다. 주기장에는 우리의 주기 공간을 걱정할 만큼 많은 항공기가 있었고, 멀리 유도요원의 손짓에 따라 항공기를 돌리고서야 주기장소와 환영인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드디어 임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나중해야 안 사실이지만 기지 내의 C-130은 한국 공군이 유일하였고, 대형 수송기와 전폭기 사이에서 날개폭이 40미터나 되는 우리 항공기가 작아 보이는 느낌마저 받았다. 이곳으로의 물자공수는 대부분 C-5, C-17, C-141 등의 대형 수송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C-130은 가끔 볼 수 있다고 한다. 충분한 연료를 실은 C-130이 이곳까지 공수할 수 있는 보급품의 양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적도의 뜨거운 날씨와는 어울리지 않게 바쁘게 움직이는 군인들의 모습에서 이곳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하였지만, 침구 세트를 보급받아 숙소인 임시텐트에 짐을 풀고 나서야 전장에 와 있다는 느낌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한 국기봉을 땅 속 깊숙이 고정하고 현지 파견요원 3명을 포함한 전 승무원이 국기 앞에 모여 조출하지만 엄숙한 국기 게양식을 가졌다. 인도양의 남쪽 끝에 있는 작은 섬에 최초로 태극기가 게양되는 순간이었다.

악기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의 첫 임무는 아무 탈 없이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동일 항로로 복귀하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악기상을 만나게 되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이륙 전에 확인한 바로는 싱가포르 지역을 덮고 있는 구름은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남서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

데 예상보다 오랫동안 정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체공할 것인지, 대체공항으로 착륙할 것인지 우리의 결심을 다급하게 요구했다. 우리는 우선 싱가포르 내의 공항 중에 착륙 가능한 기지가 있는지를 물었고, 대답은 불행하게도 'NO' 였다. 싱가포르 전체가 하나의 조그만 도시국가라 어느 공항이든 폭우와 강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던 것이다. 할 수 없이 가까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비상착륙기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비기지인 인도네시아 공항으로 착륙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곳도 싱가포르와 20마일 조금 넘게 떨어진 곳이라 기상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다. 접근 중에는 내내 구름과 강수 속을 비행했고, 활주로에 거의 가까이 접근해서야 활주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해의 비행경력 가운데에서도 이번이 두 번째 있는 예비기지 착륙이었다. 승무원들의 비정상 상황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처가 돋보인 상황이었고, 악기상 속에서도 세계 어느 기지든 착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57공수단의 이름아래 이루어진 임무의 첫 단추는 제 자리에 잘 끼워졌다. 우리 승무원들은 앞으로 펼쳐질 세계 어느 곳으로의, 어떠한 임무도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태극기의 힘찬 펄럭임과 한국 공군의 저력을 각인시킬 것이다. ⬇



날아다니는 폭탄들이 세운 세계 최초 14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213비행교육대대장 중령 이 완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T-37C 항공기들이 두 대씩 짝을 이뤄 이륙한다. 7개월 전, 점검절차를 몇 개씩 빼먹으며 더듬더듬 항공기 시동을 걸던 조종학생들이 이제는 Solo 편대이륙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하나되어 이룬 대기록

우리는 이곳에서 교육받는 조종학생들을 날아다니는 폭탄에 비유한다. 그 중엔 여자 폭탄도 있다. 언제 어디서 부딪쳐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폭탄들, 아니 학생들. 그들을 비행걸음마부터 가르쳐 이토록 고난도의 편대이륙까지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교육하

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다.

이렇게 우리가 1분, 2분 쌓은 비행시간이 합쳐져 14만 시간이 되었다. 그냥 14만 시간이 아니라, 아무런 사고 없이 이룩한 무사고 비행기록. 세계 최고 기록이다. 어렵잖아 14만 번의 비행, 70만 번의 이착륙을 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는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가르치는 교관들과 열심히 따라주는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이들의 비행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는 정비사들과 관제사들의 숨은 정성이 함께 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었다. 단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가슴이 뻘뻘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될 뿐이다. 앞으로 이어질 무사고 비행기록들은, 단지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데 대한 보답으로 받아들이길 뿐이다.

비행, 처음부터 올바르게

우리의 목표는 항공우주시대의 국익증진과 국가안보에 핵심역할을 할 정예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조종능력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정신력 함양 그리고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전략적인 시야를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데는 항상 안전저해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거기엔 기계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 요소도 있으며 인간의 실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설사 기계적이거나 환경적인 위험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조종사)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비행이란 처음부터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비행을

우리는 비행을 준비하는
마음가짐부터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을 비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종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러한 교육방침이 안전비행의
초석이자 멋진 비행을 보장하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준비하는 마음가짐부터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을 비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종학생들을 가르친다. 처음부터 올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그리고 이러한 교육방침이 안전비행의 초석이자 멋진 비행을 보장하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한 시간 전 땅을 박차고 올라갔던 T-37C 항공기가 14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란 기록을 세우고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하지만 학생과 교관들은 무사고 비행기록이 아닌 오늘의 훈련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것이다. ㊦

우리는 '수련원'에 근무합니다

- 공군 정신전력의 요람, 보라매수련원 -

보라매수련원 중위 김 선 일



"따르릉~"

"안보실 김 중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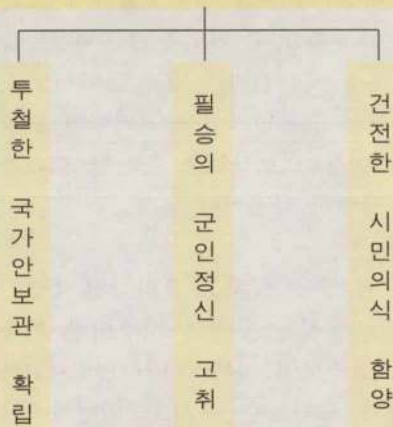
"거기 정교원이지요?"

"예? 여긴 수련원입니다만..."

"아 참 보수원으로 바뀌었지? ??? 좀 바꿔주십시오."

하루에도 수 차례, 우리의 근무지는 '보수원'과 '정교원'과 '수련원'을 오고간다. 전화뿐만 아니다. 타부대에서 발송된 문서류의 상당수가 우리를 '보수원'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가까운 공군 사관학교의 채송칸에는 아직도 '정교원'으로 쓰여져 있다. 이 정도는 약과다. 외래강사 섭외 등으로 민간기관과 통화시 우리는 '보라매 연수원'과 '보람의 수련원'을 거쳐 마침내 '보람 예술원'에 이르고야 만다. 이쯤되니 공군 사관학교 우체국에서도 '보람회 귀하' 등으로 날아오는 우편물을 우리 우체함에 넣을 때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대관절 이 "보수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이처럼 많은 이름을 갖고 있을까?

공군인의 정신전력 강화



보라매수련원의 교육목표

공군 정신전력의 요람

아직도 공군인들에게 낯선 '보라매수련원'이란 명칭은 1998년 지어진 이름이다. 이 이름을 얻기까지 그 동안 적잖은 수의 현판을 파야했다. 1976년 7월 1일, 공군대학내 '정신전력교육부'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0월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정신전력교육관실'로 옮겨졌다가 2년 후인 1978년, '필승연수원'으로 독립, 변경되었다. 또 2년 후인

수련원의 교육은 '정신교육'이란 말이
주어왔던 선입견과 거부감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그래서 수료 후 교육생들은
한결같이 '이런 교육기관이
공군에 있었는지
왜 몰랐을까'라고 말하곤 한다.



1980년에는 전대급 부대로 증편, 승격되었고, 또다시 2년 후 1982년, '정신교육원'으로 부대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정신교육원'은 '정교원'이란 약칭으로 17년 정도 불려오다가, 1998년 공군본부 및 예하부대 장병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군을 상징하는 '보라매'와 심신을 단련하는 도장(道場)이란 뜻의 '수련원'을 합친 '보라매수련원'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라매수련원의 주임무는 공군인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다. 따라서 교육목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철한 국가안보관 확립', '필승의 군인정신 고취',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설정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연간 40여개 차수의 정신교육과정이 개설되어, 대령에서 중사, 군무원에 이르기까지 약 2,500여명을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각 비행대대의 자기혁신운동(S-R)에 각종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및 교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정훈장교특기 초급과정과 정신교육교관과정을 운영하여 전 공군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훈장교 및 정신교육 담당장교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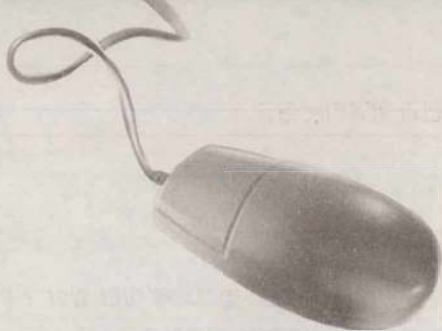
이런 연유로 보라매수련원 입구 상징석엔 '정신전력의 요람'이라 새겨져 있다.

새롭게 개편된 교과과정

보라매수련원은 매년 동·하계 2번에 걸친 교관연성교육과 매 차수 종료 후의 결과분석 회의를 통해 교관자질향상과 교육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왔다. 특히 2001년도 초에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전 교과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후 작년 한 해간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002년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새로워진 교육운영계획은 지난 1월말 「민간대학위탁 신입생 과정」부터 적용되었는데, 여기엔 한층 다양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추가와 신규강사 충원, 그리고 과정별로 세분화된 현장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라매수련원으로 거듭난 이후 지속된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수련원의 교육은 '정신교육'이란 말이 주어왔던 선입견과 거부감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그래서 수료 후 교육생들은 한결같이 '이런 교육기관이 공군에 있었는지 왜 몰랐을까'라고 말하곤 한다.

교육과정의 자세한 안내와 약도, 그리고 먼저 교육받고 나간 사람들의 사진과 수료소감문 등이 실려있는 인트라넷 홈페이지(<http://btc.aa.af.mil>)를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수련원에서 만납시다. Ⓡ



멀고 먼 면회, 이제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세요!

제11전투비행단 소위 원 종 배

서울에 사는 김혜진 양은 제11전투비행단에 근무하는 남자친구 송재열 일병을 면회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잠시 후 모니터에는 송일병의 환한 얼굴이 나타났고 동시에 부대 인터넷 화상면회소에 있는 송일병의 모니터에도 김혜진 양의 웃는 얼굴이 자리잡았다.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군대가 훨씬 부드럽고 가깝게 느껴져요.” 김혜진 양은 첫 번째 인터넷 화상면회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남자친구의 근무지가 서울에서 너무 멀어 면회 한 번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서울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전화는 가라! 얼굴과 목소리를 동시에

김혜진 양이 남자친구와 인터넷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제11전투비행단이 장병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군에서는 최초로 인터넷 화상면회소 운영을 개시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화상면회소는 군대간 자식 걱정과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부모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김원섭 이병의 어머니 한복자 씨는 화상면회소 시연회에서 아들과 면회

한 후 “아들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 뿌듯하다”면서, “생각날 때마다 아들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 괜한 걱정에 밤잠 설치는 일이 없어질 것 같다”며 기뻐했다.

정보화시대의 新면회풍속도

이번 인터넷 화상면회소 운영은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지의 면회가 한결 쉬워짐으로써 장병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대의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장병들의 정보화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 이용자 역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장소에 총 12대의 단말기로 운영되는 화상면회소의 면회가능시간은 평일의 경우 일과 후부터 저녁 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다. ㉠



러브 하우스, 한 겨울의 기적

- 공군 장병들이 만든 사랑의 보금자리 -

제16전투비행단 소위 김 광 수

요즘 '기적 같은' 이웃돕기를 통해 주말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텔레비전 프로 '러브 하우스'. 하지만 가까운 곳의 '현실'이 멀리 있는 '기적'보다 감동적일 수도 있다. 제16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 장병 20여명은 부대 인근에 사는 소녀가장 현재영(지보중학교 1학년) 양의 집을 찾아, 지난 여름 장마로 벽이 무너진 40년이 넘은 낡은 흙담집을 수리하고 재영 양 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함께 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운항관제대 전장병이 마련한 성금과 체육대회 포상금을 모아 벽돌과 시멘트, PVC 등 각종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벽면과 창문, 출입문 등 가옥 내외부를 말끔히 수리하고 보일러도 새로 들여놓아 장병들의 마음만큼이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부대도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주택 보수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인근 행정기관에서도 인원 10여명을 투입하여 이웃사랑에 동참했다. 특히 교대근무를 하는 운항관제대의 특성상 비번인 장병들이 자원하여 주택 보수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웃사랑의 참뜻을 되새기게 했다.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5살 때부터 연로한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아온 재영 양에게 친오빠 같은 장병들의 방문은 한겨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다. 재영 양과 운항관제대 장병들이 인연을 맺은 것은 올해 4월, 이미 2년 전부터

재영 양을 남모르게 도우며 친자식같이 돌보던 운항관제대 이형만 상사의 선행을 전해들은 동료 장병들이 하나 둘씩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부터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에서 1·2등을 다투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재영 양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 장병들은 그 동안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매달 10여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낡은 가옥의 이곳저곳을 돌보며 재영 양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또한 지역주민 초청행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행사에도 재영 양을 초청, 장병들과 한가족 같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재영 양의 할머니 정석매 씨는 "손주 같은 장병들이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집까지 지어줘서 재영이와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되었다"며 부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 겨울, 재영 양 가족은 공군 장병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



임오년 새 생명을 구하라!

- 제6탐색구조전대 야간 응급환자 긴급후송작전 -

임오년 첫 해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 1월 4일 새벽 2시 30분, 제6탐색구조전대(이하 6전대)는 새벽녘의 어둠과 추위를 흔들며 환자 긴급후송작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백령도 인천의료원에 입원한 임신 35주된 산모가 진통이 시작된 지 5시간, 양막이 터진 지 2시간이 경과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조산할 경우 인큐베이터 시설이 없는 백령도 의료원에서는 태아의 생명 역시 매우 위험하다는 상황이 접수됨과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어둠 저 편에 꺼져가는 생명이 있다!

6전대는 즉시 HH-60 헬기를 이륙시켜 백령도로 향했다. 그러나 새벽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헤쳐가며 백령도까지 헬기로 이동한다는 것은 베테랑 헬기 조종사인 정문홍 소령(공사 38기)과 강희상 대위(공사 44기)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임오년 새해 첫 긴급후송작전을 맡게 된 이들은 새롭게 생명을 얻을 아이와 산모만을 생각하며 NVG(Night Vision Goggle: 야간투시장비)에 의존한 채 백령도로 전진해 갔다.

말처럼 힘찬 태아의 울음소리

새벽 4시 36분 헬기는 드디어 백령도에 도착했고, 산모와 생명을 갈구하는 태아를 태운 헬기는 1시간 여의 비행을 거쳐 5시 46분 인천에 도착했다. 헬기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앰블런스에 옮겨진 산모는 인천 인하대병원

에서 2.05kg의 사내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었다.

긴급후송작전을 마친 정소령은 “새해 첫 작전을 이렇게 긴박하고 힘들게 시작할 줄은 몰랐다”며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해 2명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어서 무척이나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6전대는 지난 해 백령도, 울릉도 등 의료체계가 미진한 도서지역과 육로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재해재난 지역에 총 47회에 걸쳐 긴급 투입되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되었다. 공군은 이번 긴급후송작전을 시작으로 금년에도 하루 24시간 국민이 원하는 곳에는 언제, 어디에나 달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군의원 발명왕, 제16전투비행단 김욱진 대위



매년 2천여명에 이르는 농약음독 사고사망자를 줄여 보겠다는 한 군의원의 소박한 꿈이 현실로 영글어 가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16전투비행단 의무전대에서 항의실장으로 근무 중인 김욱진 대위.

김대위는 얼마전 한국 발명 진흥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특허 기술대전』에서 현역 군인으로는 유일하게 금상인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대위의 발명품은 '음독사고 방지용 안전마개 장치'. 2년 전에 출원한 특허가 작년 6월 인증된 뒤 그 창의성과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仁術의 꿈이 발명으로

김대위가 농약 음독사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 입대 전인 지난 99년 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약음독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 중 약 70%가 사소한 부주의 혹은 순간의 충동으로 농약을 먹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온 것. 독성이 강한 농약을 마신 환자가 응급실

로 실려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10%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마다 우리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농약 음독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한 증가하는 가슴 아픈 현실도 김대위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특히 매달 부대 농촌 의료봉사활동을 나가면서 농약으로 인한 인근 지역농민들의 사건·사고를 자주 접함에 따라 더욱 발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나보다 남을 위한 발명

김대위가 2년여의 연구기간에 걸쳐 만든 안전마개는 우리 인체가 그 구조상 농약병 등의 용기를 지면에 대해 완전히 거꾸로 하여서는 용기에 든 내용물을 마실 수 없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용기 마개 내부에 나선형으로 홈을 파고 그 안에 개폐볼을 두 개 장착하여 용기를 비스듬히 기울일 때는 볼이 통로를 막아 내용물이 개폐볼 사이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용기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는 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본래의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음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윈터치 스노우 타이어'와 '니코틴 캔디' 등 현재까지 2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출원 중인 김대위는 "나보다는 남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서 발명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며 "군 복무기간 동안 내가 그 동안 익힌 의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발명에 관심을 가져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④



각탕(脚湯)법,
일명 족욕이라는 건강법이다.
섭씨 38~40도 정도의
더운물에 종아리 아랫부분을
담그고 있으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몸에서 땀이 나온다.

경향신문사 사장 장 준 봉

쉽게
할
수
있는
건강법



足
浴

사회생활을 명랑하고 활기차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해야 한다. 나는 등산도 하고 테니스나 골프도 가끔 즐기고 있으나 역시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량을 충족시켜 주지 못함으로 지난 1986년부터 색다른 건강법을 즐기고 있다. 각탕(脚湯)법, 일명 족욕이라는 건강법이다. 섭씨 38~40도 정도의 더운물에 종아리 아랫부분을 담그고 있으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몸에서 땀이 나온다. 이 각탕법은 함께 할 파트너가 없어도 혼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좋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이 건강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고 한다. 독일에는 목욕탕에 족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 많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족욕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족욕의 뛰어난 건강효과

족욕의 효과로는 심장병과 신장병에 좋다고 문헌에 나와 있다. 나는 지난 86년 우연한 기회에 문헌에서 족욕이 건강, 특히 신장에 좋다는 내용을 읽고 족욕을 시작했으며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족욕을 계속하는 동안 펴 건강해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신장이 좋지 않아 조금만 무리하면 얼굴과 손발이 붓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증상이 심했으며, 심

장도 약한 편이어서 골프코스를 5, 6홀 정도만 걸어도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건강이 나빴다. 그러나 족욕을 반년쯤 계속하는 동안 그런 증상이 없어졌고 항상 노랗거나 검었던 안색이 건강한 혈색으로 변했다.

족욕을 처음 시작할 때 대중목욕탕에 가서 욕탕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종아리 아랫부분만 욕탕에 담그고 땀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시작했다. 땀이 약 50여 분만에 머리부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가슴과 등 팔뚝에 이르기까지 온 몸에서 흘러내렸다. 그렇게 하여 흐르는 땀은 욕탕 밖으로 나와서도 약 20분간 계속 흘러내렸다. 족욕을 하고 나니 몸이 가볍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전에는 보통 새벽 2, 3시경이면 잠을 깨서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잠을 설치 낮에는 늘 피곤함을 느끼곤 했었는데 그런 불면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처음엔 땀이 50여분 걸려서 나왔으나 날이 갈수록 점점 땀이 빨리 나오기 시작하여 한 달쯤 지난 후에는 30여분, 6개월 후에는 20분대로 단축되었다. 이제는 17, 8분 정도면 땀이 나온다.

확실한 성인병 예방책

족욕을 계속하는 동안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숙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잠을 잘 자게 되다 보니 자연 피곤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비듬도 없어졌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 또 갈증을 유난히 많이 타서 지나치게 물을 자주 마셨으나 그런 증상도 족욕을 계속하는 동안 없어졌다.

또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곤 했는데 족욕을 시작한 후 용변을 잘 보게 되면서 그 같은 허리가 걸리는 현상이 없어졌다. 족욕으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잘 되다 보니 숙변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런 효험을 보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일이 걸렸다. 이 밖에 소변이 잘 나오고 피부가 고와 졌다.

족욕을 시작한 86년부터 5년간 족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매년 종합진단 결과를 전 년도의 것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별다른 약을 복용하거나 운동량을 늘리지도 않았는데도 당뇨증세나 콜레스테롤 지방간 등의 수치가 모두 줄어드는 등 건강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이 족욕을 하기 시작한 이듬해부터 아주 깨끗해진 것으로 판독되었다. 이는 족욕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만병통치인 것처럼 들리기 쉬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성인병에는 확실히 효험이 있는 것 같다.

족욕으로 건강한 한 해를

족욕하기에 알맞은 온도는 목욕탕에 가면 온탕(38도)과 열탕(42도)이 있는데 온탕이 적합하다. 온탕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면 건강한 사람은 20여분 내외에서 땀이 나오기 시작한다. 온탕에 발을 넣으면 처음에 뜨거운 것을 느끼나 약 5분 정도 지나면 미지근하게 느껴진다. 그때 열탕으로 옮겨 앉으면 좋다. 처음부터 열탕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땀구멍이 움츠러들어 오히려 땀이 늦게 나오고 심장 등에 부담을 주는 것 같다. 나는 족욕을 처음 시작할 때 땀이 나오기까지의 지루함을 덜기 위해 신문을 읽곤 했다. 사설과 기타 칼럼 한두 편을 읽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몸에 땀이 흠뻑 배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건강도 다지면서 어차피 읽어야 할 신문도 보니 시간도 별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건강해지려면 잘 자고(快眠), 잘 먹고(快食), 변을 시원스럽게 보는 것(快便)이 중요하다고 한다. 족욕으로 나는 이 세 가지 효과를 보았으므로 감히 다른 분들에게도 족욕을 하도록 권하는 바이다. ☺



전투조종사와 애국심

성우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 종 권(예비역 공군 소장)



최첨단의 전투기에 애국심으로 정예화된
전투조종사들을 앞세운

일 국가의 군사력 결핵의 의지아말로
가히 전쟁억제의 수단이 될 것임과
국가간의 외교관계를 좌우할 수도 있는
최종적 협상의 힘ियो
평화를 위한 과시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거부할 수 없는 한 순간에 적의 전쟁지도
부를 괴멸하고 전략목표를 강타해 내는 것이
항공세력이다. 일국의 확실한 항공세력은 바
로 그 자체가 전쟁억지력이 되는 동시에 전
쟁승리의 결정적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주권국가들은 차세대
전투기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
가가 군사력 건설의 핵심과제가 되어 왔고
그 항공세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목적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왔다.

그 지대한 관심 속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실체 하나는 그 전투기에 생명을 불
어 넣고 있는 전투조종사들의 능력과 관리이
다. 특히 현대전의 전사를 통해서 그들이 승
리의 결정적 역할을 해 왔음을 살펴볼 때에
평시에 전투조종사들이 어떻게 특수 관리되
고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직업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특

별한 관심은 군 지도자들에게 차세대 전투기 확보 이상으로 중요한 관심사항의 하나이다.

특히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한대의 가격이 일천억이 넘는 오늘날 그 전투기를 조종할 전투조종사의 사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진급 문제와 복지문제는 전투기 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으며 그 어떤 전문 특기보다도 진급과 보직 등의 특별한 차별화로 그들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고양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전쟁억제의 강력한 수단

지난 9월 11일 뉴욕에서의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부를 공격한 전투기가 아닌 민간 여객기의 가공할 자살테러 사건은 21세기 새로운 전쟁을 예고했고 인간의 사상적, 정신적 영역의 통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동서간에 가미가제식 도전이 얼마나 무서운 힘의 실체인가를 새삼 느끼게 했다.

여객기와 민간 조종사가 그러할진대 최첨단의 전투기에 애국심으로 정예화된 전투조종사들을 앞세운 일 국가의 군사력 결행의 의지야말로 가히 전쟁억제의 수단이 될 것임과 국가간의 외교관계를 좌우할 수도 있는

최종적 협상의 힘ियो 평화를 위한 과시력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戰史 속의 전투조종사들

항공기가 등장한 지 100년, 한 세기에 이르는 동안 전투기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급기야 우리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정신적 판단의 한계를 넘는 최첨단의 전투기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마하 3으로 나는 대형 여객기는 세계를 지구촌을 일일 문명권으로 바꿔 놓았고 최첨단 전투기는 정확하고 놀라운 침투성과 파괴력으로 전쟁의 기본개념과 교리를 바꿔 놓았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투조종사들은 군인 중에서도 남다른 애국심으로 죽어서는 군신이 됐고 살아서는 전쟁영웅이 된 많은 전사들(Warriors)의 대명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는 전쟁사에 수없이 많으나, 태평양 전쟁의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과 이를 극적으로 보복한 미국의 동경 전략폭격을 비롯해서 그 광활한 태평양의 하늘 공간에서 펼쳐진 전투조종사들 간의 처절한 공중전투들은 적아를 떠나 조종사들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기에 그 사례들을 소개한다.

동경 전략폭격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공격은 일순간 20세기의 세계사를 바꿔 놓았다. 야마모토 원수가 이끄는 태평양 함대의 주력이 되는 6척의 항모단에서 발진한 400여대의 전투기들은 이른 아침 주말의 평화로운 진주만을 기습 강타했다. 일본은 태평양 함대의 위력과 함재기, 전투조종사들의 애국심을 앞세운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전쟁 초기 승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름하여 전쟁사에 남겨진 전투조종사의
대명사 에이스(Ace).

그 영웅적 대명사의 성취에는
수많은 전투조종사들이 도전해 왔지만
그 성취는 결코 쉽지 않았다.

애국심을 가지고 끊임 없는
자기 단야에서만이
그 성취가 가능할 것이다.

전 미국 국민은 분노했지만 초기 전황은 앞날을 암울케 했으며 국민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졌다. 따라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일본 본토 폭격으로 보복할 것을 명령했고 전쟁지도부는 전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동경 전략폭격을 극비에 준비했다.

진주만 기습 133일만에 미국 최고의 전투조종사, 제임스 H. 두리틀 중령이 이끄는 B-25 중폭격기 16대와 80명의 항공결사대는 항공모함을 발진하여 동경으로 날아갔다. 훗날 미국식 가미가제라고 명명된 이 전설적 동경 전략폭격은 세계 항공전사에 있어 너무나 유명하다.

당시 폭격기는 항모에 착륙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500파운드 폭탄 4발씩을 달고 항모에서 최단거리 이륙이 되도록 조종사들은 특수 훈련을 받았다.

항모 호넷트가 최대로 일본 본토에 400~500마일까지 접근한 후 폭격기편대를 발진케 해야만 16대의 결사대는 동경폭격 후 남은 연료로 곧바로 서남쪽으로 향해 한반도를 가로질러 서해를 넘어 중국으로의 생환이 가능하며, 항모로 되돌아 올 수 없는 전술적으로는 무모한 작전계획이었다.

호넷트 항모단은 동경 접근 800마일 해역에서 일본 정보선들에게 발견된다. 함장은 일

본 전투기들이 다음날 닥치리라 예감한다. 전속력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향진했고 드디어 발진명령을 내렸다. 예정된 출격해역에 도달하기 300~400마일이나 일찍 발진 명령을 내린 것이다.

1942년 4월 18일 오전 8시, 이 발진 명령은 태평양 전사에 오래 남을 지휘관의 결단이었다. 그들은 이미 출격하면서 동경폭격 후 연료부족으로 중국대륙의 서해안까지도 도달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륙한 지 4시간 후 성공적으로 동경폭격을 마쳤으나 돌아가야 할 귀로까지 연료가 부족했다. 결국 연료부족과 악천후 속에서 대부분이 서해상에 불시착을 하거나 엔진이 정지하자 공중탈출을 감행했고 일부는 만주로, 블라디보스토크 등지로 날아갔다 그들의 대부분은 중국인의 보호를 받았고 일부는 일본군의 포로가 됐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생존자는 모두 60명이었다. 제임스 두리틀 중령은 중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오자 장군으로의 2계급 특진과 의회가 주는 최고훈장을 받았으며 훗날 대장까지 승진했다. 동경폭격 대원들 중 생존자들은 해마다 4월 18일, 그들의 애국심을 돋보이게 했고 사라져간 동지들을 추모했다.

지금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미 공군사관학교의 역사기념관에는 동경 폭격대원의 이름이 새겨진 80개의 은컵이 진열되어 있는데 현재 살아 있는 대원들의 컵은 바로 세워져 그 날 그 출격의 성공을 빌었던 건승의 의미로, 그리고 이제 유명을 달리한 동지의 컵은 뒤집어 세워 놓음으로써 영원히 역사적 사건을 기념케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뒤따라 오는 내일의 전투조종사들에게 애국심의 한 표본이 되게 했다. 동경폭격의 전략적 의미는 진주만의 치욕

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 국민들의 사기를 크게 북돋았고 반대로 일본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동경폭격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다. 연합함대의 야마모토 사령관은 제2의 동경폭격을 막기 위하여 미드웨이를 점령코자 했다. 이러한 계획은 필연적으로 미드웨이 해전을 자초했고 이 해전에서의 패전은 태평양 전쟁의 승패의 갈림이 됐다.

태양보다 뜨거운 정열, 빨간 마후라

우리에게도 6·25전쟁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태양처럼 뜨거운 애국심을 길러온 전투조종사들이 있다. 그들은 긴 활주로를 생명선으로 하여 전투기와 함께 기지 내에서 출동명령을 기다리며 오늘도 조국의 하늘을 날고 있다.

누가 그들의 진실을 아는가,
누가 그들의 사랑을 아는가,
그 누가 그들의 고독을 아는가,
나는 느끼노라 이 빠른
음속에서 너의 신념을,
이 높은 고도에서 너의 의지를,
그리고 너의 빛나는
눈동자에서 깊은 애수를,
나는 헤아리노라 너의 목덜미 붉디
붉은 빛깔에서 피보다 진한 망향을,
태양보다 뜨거운 정열을
그래서 너를 빨간 마후라라 이름했다.

이 글귀는 음속 3의 속도로 5만 피드의 고도를 날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전투조종사들을 위해 바쳐진 헌시 '불

새'의 한 구절이다. 오늘도 그들은 통일을 염원하며 그 언제쯤 두만강을 따라 북만주 건너보며 새벽하늘의 초계비행을 할 수 있을가를 생각하며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 비쳐진 전투조종사들의 애국심에 관한 이야기는 많다. 살아 있는 군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자못 충격적이고 감동적이다.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만이 해야 했던 특수한 임무를 전투조종사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름하여 전쟁사에 남겨진 전투조종사의 대명사 에이스(Ace). 그 영웅적 대명사의 성취에는 수많은 전투조종사들이 도전해 왔지만 그 성취는 결코 쉽지 않았다. 애국심을 가지고 끊임 없는 자기 단야에서만 그 성취가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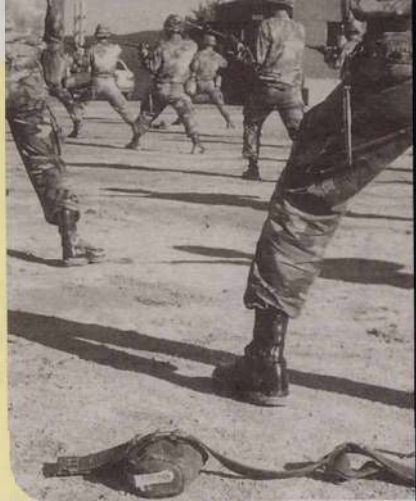
훗날 이 나라를 지켜 갈
전투조종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국
립묘지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묘비들이
지만 선진국처럼 전투
조종사들의 묘역이라
하여 성역화되어질 것
과 살아서는 대령까지는
진급에 큰 어려움이 없게
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금지를 버리고 조기에 민항기 조종사로 전향해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전투조종사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남다른 임무에 깊은 경의를 보내자. ㉠

내 삶의 최고의 선택

호원대학교 총장 · 공군사관후보학교회 부회장 강 희 성



눈에 익은 파란 잠바를 입은 잘생긴 청년이 서울역 대합실 쪽으로 씩씩하게 들어오고 있다. 나의 시선은 번잡하고 소란스런 분위기에 서도 그에게 고정되어 계속 쫓고 있다. 그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청년장교 공군 소위였다.

내 삶 속의 괴물같은 친구들

나는 1979년 3월 5일 공군에 입대하여 7구대 713번 후보생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5개월 훈련기간 중 첫 3주는 지옥주간이라 하여 민간인인 우리를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척 힘들게 한 기간이었다. 그땐 도대체 이걸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훈련기간 중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동작봐라', '오와 열이 맞지 않는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라'였다.

우리 내무반은 개성과 특기가 각기 다른 후보생들의 집합소였다. 그 중에서도 양현택, 송호섭, 양종욱, 김영도 등 지금도 자주 만나는 그 '괴물'들은 나의 삶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친구들이다. 그 친구들 덕분에 원산폭격, 한강철교 등 다양한 기합을 모두 섭렵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군인정신 역시 키워갈 수 있었다.

드디어 8월 1일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정들었던 구대원들과 헤어져 각자 부대에 배치되었다. 나는 관리병과였으나 현 병병과로 분류되어 부대경비 소대장을 맡아 소대 지휘관으로 군복무를 시작했다. 그때 나

는 야간순찰을 위해 짚차를 타지 않고 몰래 조용히 자전거로 순찰을 돌면서 잠에 빠진 초병들을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할 뿐이다. 이 당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활주로의 야경이다. 유도등이 마치 바다 같은 활주로를 비추는 모습은 넓은 바다를 항구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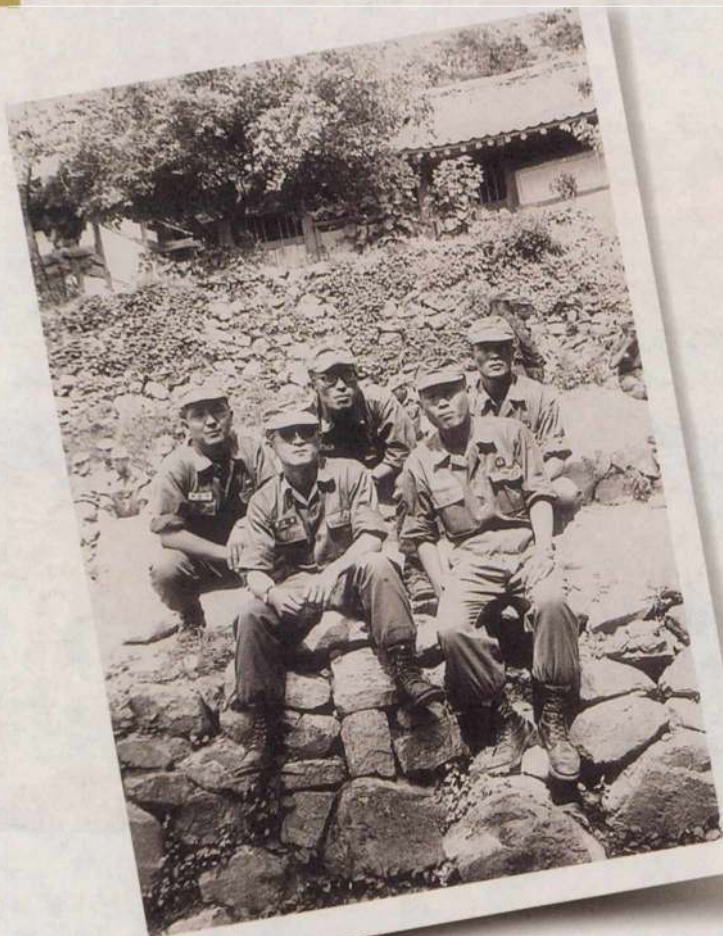
공군에서 배운 생활철학

전역을 1년 앞둔 시기에 오신 김현석 중령님은 정통 군인이었다. 원칙적이고 정도를 걸으시는 그 분의 생활은 지금 나의 생활철학인 '원칙과 정도를 중요시하자'에 큰 영향을 주었다.

되돌아보면 공군에서의 군생활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행정적인 경험, 지휘관으로서의 경험, 신혼생활과 첫아이 출생의 기쁨 등. 무엇보다도 군시절 알게 된 동기와 선후배님들은 지금도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이제 그때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년에 공군 장교에 지원하려고 한다. 나는 내 아들이 공군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나처럼 아들의 삶에서 최고의 선택으로 공군이 자리잡을 것을 믿는다.

내 삶의 최고의 선택. 지금 나는 공군가를 크게 부르고 싶다. '하늘을 달리는 우리 꿈을 보아라...' (4)



사관후보생 67기 김 문 환

1973년. 행군훈련 중 공주 갑사에서.

빛 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교관들은 예나 지금이나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사진 속의 장면이 과거임을 알리는
민무늬 군복과
두꺼운 뿔테안경
그리고 젊은 시절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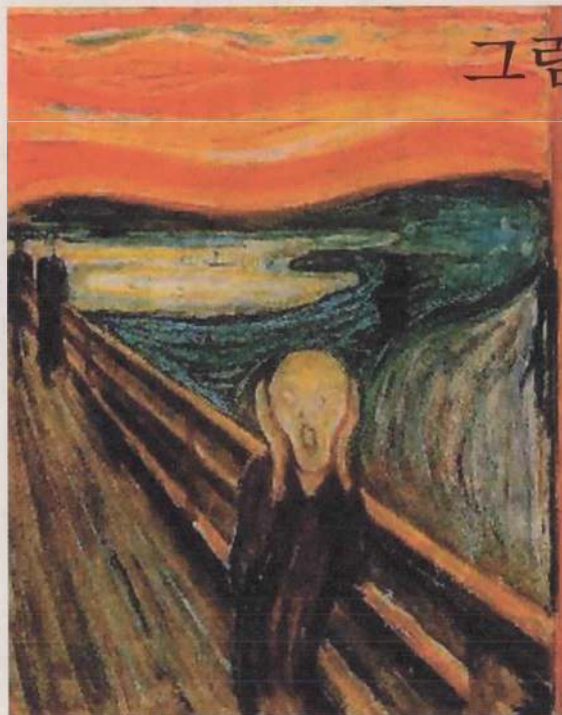
먼지 뽀얀 전투화가
걸어 온 길을 짐작케 한다.

그 무덥던 1973년의 여름,
행군 중에 들렀던
그윽한 공주 갑사에도

지금쯤
하얀 눈이 소복하겠지.

그림 감상, 노래 듣듯이

화가·한국기독교미술관장 정명희



군대가기 전에 들었던 노래와 군생활하던 때의 노래가 사뭇 다르다. 물론 제대 후의 노래도 다르다. 같은 노래인 데도 불구하고 다르다.

감정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내재된 감정이 있고 생성되는 감정이 그 위에 엉킬 때 감정의 차이는 분위기에 따라 또 다르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노여워하며, 안타까워 한다. 그때마다 노래의 감정이 다르다. 그렇게 느껴진다. 트루트 가수들에겐 참으로 미안하지만 젊었을 땐 코맹맹이 소리의 소위 '뽕 짝류'의 노래는 닭살이 돋았었다. 그때 그랬었다. '클리프 리처드'나 '안 마가렛', '레이 찰스'가 부른 노래를 속뜻도 모르면서 흥얼댔었다. 거기에는 시대주의적 근성도, 미국이 부러워서도 아닌 그냥 시대감각에 맞는 리듬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한 세대를 지나자 그것도 추억의 언저리에 정착했다. 그리고 그 닭살 돋던 노래들이 언제부터인지 가슴 시리는 때마다

나도 모르게 부르는 노래가 될 줄은 '진정 난 몰랐다'.

그림을 노래처럼

그림감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선 웬 유행가 타령이냐겠지만, 실상 그게 그거다. 그림이 그렇고, 음악이 그렇고, 시가 그렇다. 걸 보기엔 차갑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싸움질 한판에, 술 한잔에, 사역 한번 같이 한 걸 가지고도 속 깊은 사이가 됐던 것처럼 그림감상도 어떻게 인연을 맺느냐가 관건이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도 어릴 적엔 양을 닭았다느니, 말을 닭았다느니 했었다. 그런 구름이 그녀를 닭아 가슴이 미어졌다거나, 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닭아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라면 필자의 의도를 이해할 줄 믿는다.

군가 한 곡을 부르려 해도 반동시작에서부터 '하나, 둘' 구령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꿈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이 꿈을 소유할 수
있다. 미식가는 음식을 빨리 먹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무엇인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다. 감동이 올 때까지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당신을 그림감상의 길로 이끌
것이다.

4~5분은 족히 걸릴 것이다. 군가 한 곡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물며 그림 감상에 있어서야 말해 무엇할 것인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전시장에 한두 번쯤이야 다녔을 것이다. 학창시절 미술감상 대신에 제 출했었던 전시 팸플릿도 이제 추억이다. 그러나 전시장에서 제대로 그림을 본 기억은 별로 없다. 또 보려해도 무엇인지 모른다고만 생각했었다. 난해하기만한 제목부터가 귀찮아 포기했을 수도 있다.

그림을 보려는 인내

우선 그림 한 점을 군가 한 곡 부를 시간만큼 보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서 부동자세를 취하라는 말은 아니다. 전시장을 한바퀴, 두바퀴 천천히 돌면서 전시장의 분위기에 동화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시작품 중에 한 점을 고른다면',

'선물로 받는다면'이란 상상도 가능하다. 우선 후보작을 고르고, 다시 후보작 중에 저울질을 해보는 잔재미를 즐겨야 한다. 필자의 전시회 경우 전공유무를 물어놓고, 남녀노소 공히 골라내는 작품들이 동일했다. 전문가건 비전문가건 좋아하는 작품은 비슷하다는 말이며 명작에는 시대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전시장에 들렀다 생각하고 그 시간을 즐길 일이다. 어떤 작품을 골라주면 그녀가 좋아할까?

꿈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이 꿈을 소유할 수 있다. 미식가는 음식을 빨리 먹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무엇인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다. 감동이 올 때까지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당신을 그림감상의 길로 이끌 것이다. ㉠

정보화사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前 LG 인화원 원장 · 現 LG그룹 고문 김 용 선

정보화시대에는 꼼꼼하고 정확한 것보다 대강대강, 빨리빨리, 적당히 해야 성공하니까, 한국사람 성격에 잘 맞아서 우리가 일본을 이길 것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어느 신문에선가 공업화에 뒤졌으니 정보화에서 앞서자라는 주장을 편 일이 있지만, 대강대강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지는 않았네. 그러나 많은 언론 보도나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회 일반을 그렇게 믿게 만들어 놓은 책임이 큰 것은 사실이지.

실제로 우리가 일본을 앞섰고, 일본이 우리에게 배우러 온다는데요?

인터넷 광대역망, 휴대전화 등의 보급률이 일본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고 거리의 PC방 같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도 많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전반적인 정보화가 일본보다 반드시 앞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일본사람은 꼼꼼, 정확, 고지식해서 높은 품질수준과 대량생산기술로 20세기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대강대강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하는 우리 민족성이 잘 맞는다는 주장은 틀린 건가요?

몇 가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설 수 있던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정보사회의 기반구조에 투자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전적으로 대강대강, 빨리빨리라는 우리 민족성에 돌리는 것은 무리지. 뒤쫓아간 우리는 앞서사람의 시행착오를 피해 갈 수 있고, 또 선진국은 이미 투자해 놓은 사회간접자본이 너무 커서, 급격한 방향전환이 어렵다네. 2차대전 후, 공장설비가 완전히 파괴된 독일과 일본은 새로이 최신 고성능 설비를 했는데, 승자인 미국, 영국은 파괴 안된 구식설비 때문에 설비의 개체투자에 도리어 불리했던 경우를 본다면, 후발주자가 빨리빨리로 성공하는 것이 정보화나 민족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겠지.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서 기분 좋고 결과도 좋다면, 그런 식의 주장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엄격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사기양양(士氣昂揚)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사이버 논리를 펴는 방법은 운이 좋으면 한 번쯤은 잘 될 수도 있는 속칭 '공수'지. 이런 방법이 두 번 통하지도 않으려니와, 대강대강하는 것이 정보화의 비결이니 하는 비과학적 미신을 믿다가는 크게 낭패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해서 안될 것이 없다. 하면 된다 등의 사기양양 방식은 오랜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려고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절에나 효과가 있지. 그런 낡은 사고로 새로운 정보화사회 건설은 불가능하다네.

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아직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디.

빨리빨리란 적당히, 대강대강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라는 것이며, 꼭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정확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꼼꼼히 하기를 귀찮아 하는 사람들이 자기합리화를 위해 그런 식의 논리개발을 한 걸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그(결함)를 찾으려고 애써 본 사람이라면 이때의 꼼꼼함과 정확성이,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를 다루는 공업화에서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 잘 알 것이네.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지 대강대강 했다가는 후에 수십 갑절 더 시간이 걸리고, 고생하기는 정보화에서 더 하다네.

정보화시대에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져 구 시대의 사고방식이 안 통한다는 데요. 혹시 옛날 사고에서 아직 못 벗어나신 게 아닐까요?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반성은 항상 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정보화시대를 공업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후기 공업화시대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네. 한때는 이 두시대가 역사적으로 확연히 확이 그어질, 큰 변동이 아닌가 생각한 일도 있었지만, 자꾸 보고 느끼면서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시대가 같은 주역(主役)-앵글로색슨-에 의해서 시작된 점이지. 역사적인 큰 변동은 대개 다른 주역에 의해서 이루어졌었지. 그리고 후진국을 다녀보면, 정보화를 잘하는 사회는 공업화에서의 필요조건인 꼼꼼, 정확을 잘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네. 한국이 지금 수준의 정보화에 성공한 것은 우리의 대강대강이 아니라 꼼꼼, 정확 때문임을 알 수 있지. 후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정확하게 살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대량생산 공업화 체제를 겪으면서 몸에 배게 된 것이라네.

보는 각도가 다르시군요.

각도가 다르다기보다 유행어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해주면 좋겠네. 대중매체에 디지털 사고와 휴면을 연결시킨 상업선전문구까지 등장했는데, 도대체 디지털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군. 사람의 감각은 아날로그형이라 디지털을 인식할 수는 없는데, 디지털기술이 아날로그적인 우리의 느낌을 전달하는 통신수단으로서 대단히 유용하다는 의미로 디지털기술시대라고 하는 것은 옳지만, 사람이 디지털화, 즉 기계화, 수단화되는 것을 찬양하다니 '비인간적인 디지털사고'와 인간이 어떻게 결부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네. 유행어 두 개를 나열해 놓고 스스로 가장 선진적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지. 이러다가는 개념의 혼란이 일어나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문화파괴가 오지 않을지 걱정이야.

그런데 꼼꼼하고 정확하다 못해, 왜 그렇게 까다로울 정도로 말의 뜻을 따지십니까?

그것은 정보화가 바로 과학적 개념이기 때문이야. 적당히로는 이를 수 없는 목표라네. 비과학적이고 듣기만 좋은 주장은 해로울 뿐이야. ㉠

발관리에서 대체의학까지, 무궁무진 의학사이트



인터넷서퍼 이 수 영 sy_lee@cultizen.co.kr

몸에 이상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주변에 상담하거나, 대충 어림잡아 해당 병원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 물어봐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정도는 제한되어 있고, 병원을 가자니 바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아픈 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않을까, 사려 깊은 설명이나 치료가 제공될까 걱정이 된다.

우선 손쉽고 친절한 인터넷을 통해 증세를 파악하고, 가능하면 상담까지 받아보자. 가장 유명한 건강포털 사이트로 건강샘(healthkorea.net)과 케어캠프(carecamp.com)가 있다.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믿음직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무료로 검색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담코너도 제공하고 있다.

건강샘이나 케어캠프와 같은 건강포털들은, 급할 때 찾아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지만, 최근 의학소식과 다이어트나 금연, 미용 등의 건강관련 정보,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건강상품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나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모이는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개인의 건강 켈린더도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다. 물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얻는 도움이 크다고 해도, 제때에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대체의학'에 대해서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과학적 의학이 치료할 수 없었던 것, 혹은 그것의 문제점에 눈을 돌리고 동양의 대안적이고 자연적인 의술로 돌아가려는 풍조를 보이

고 있는 것이다. 비록 대체의학에도 전문가들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DIY(Do It Yourself) 정신에 따라 직접 대체의학을 개발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도 물론 인터넷은 좋은 수단이다. 중앙일보 건강포털의 대체의학 채널(healthcare.joins.com/alte)과 아름답게 만들어진 코리아허브(korherb.net) 사이트가 추천할 만하다.

이밖에 건강관련 사이트로 평생 시력관리 서비스 아이러브오케이(www.eyeloveok.com)는 안과지식과 시력, 색감 등에 대한 자가 진단을 제공하며, 특히 직접 자신의 사진을 올려 진열된 안경, 선글라스를 썬볼 수 있게 해주는 재미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발 연구소(www.foot.co.kr), 음악치료 연구소(hamtherapy.com), 한국미술치료학회(korean-arttherapy.or.kr), 내 마음 고쳐(psychonews.co.kr) 등도 관심을 끈다.

이중 '내 마음 고쳐'는 유독 정신의학분야 서비스가 부족한 국내에서 주목을 받는 정신 장애 상담사이트이다. 아직은 좀 부실한 편이지만, 전문의가 응대해 주는 상담실은 물론, 화살표를 따라가며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페이지와 온라인 심리검사, 영화나 예술 등에서 나타나는 정신병리적 상황분석 칼럼, 마음을 고치는 서점 등을 제공한다. 특히 동병상련 게시판 등 커뮤니티 서비스(psychonews.co.kr/coboard1.htm)가 유명하다. 대인공포증, 주부우울증, 강박증, 외모 콤플렉스, 정신장애가족 문제, 이성문제 등 비슷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정보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게시판이다. ④



흔히들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서양고전음악의 주인공을 배출한 나라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러시아 정도이다. 걸다리로 체코, 폴란드, 미국 등이 끼는 사정이니, 우리는 서자도 못된다(KBS 교향악단이나 서울시향이 피나는 연습 끝에 해외공연을 나가면 호평을 받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보고 신기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그런 나라의 수도 서울에만 20여개의 교향악단이 있다고 한다. 가장 흔하게 배우는 것이 피아노이긴 하지만, 그 외의 악기들은 전부 교향악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 음악계로 배출되는 수많은 인력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있을 법도 하다. 하지만, 그 교향악단들 대부분은 1회 평균 관객이 500명도 되지 않는다. 100명 가까운 인원이 짧게는 일주일, 짧게는 한 달씩 연습해 가지고 비싼 대관료 내고 무대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쇼'를 벌이는 데 제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이 500명도 안 되는 콘서트라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순수예술이 흑자 내는 장사를 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슬픈 현실

관객의 입장에서 보자면 음반으로 듣는 베를린 필이나 빈 필의 연주보다 떨어지는 연주를 굳이 비싼 돈 내고 보러갈 이유가 없다는 것일 테고, 교향악단의 입장에서는 평균 관객의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력투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일 터이다. 전력투구라고 하

면 많은 연습, 많은 공연횟수, 높은 공연수준, 좋은 협연자, 훌륭한 지휘자 등일 터이고, 교향악단 단원들은 자신들의 본업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할 것이다.

왜 우리가 서양음악을 잘하려고 애써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파산 직전의 상황이 클래식판 뿐이겠는가. 그래도 작금의 상황은 엄청난 낭비다. 비싼 레슨비 쥐가면서 좋은 선생 사사하고 달려 써가면서 유학 다녀온 인력들이 백 명씩 모여 앉아서 공짜표 들고 들어온 천 명 앞에서 핸드폰이 울리건 악장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건 말건, 김 빠진 콜라처럼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실천지침

어디서부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지는 알 수 없다. 최소한의 실천지침을 생각해 보자면, 문화소비자들에게는 소비패턴의 변화(술 마시고 명품 사 입는 것에서, 좋은 책 사 읽고 좋은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를, 문화생산자들에게는 예술의 가치는 그 절대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것을, 그들의 후원자들에게는 좀 더 끈기있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급한 판단의 유보를, 매개자인 언론에게는 안전한 기사(정경화, 정명훈, 장영주 띄워주는 기사는 전문기자 아니어도 다 쓸 수 있다)말고 진정 한국 음악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과 비판과 격려를 당부하고 싶다.⬇



공포는 이미지다. 영화 'The Others'

제15전투비행단 중위 김지훈/영화평론가

소름 돋게 하는 공포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괴물이나 악의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보일 수도 있는 이미지다. 귀를 거슬리게 하는 미달이 소리나 찰나와 같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에는, 그 소리나 시각적 인상의 근원을 알 수 없음으로 인해 인간에게 끼치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더구나 고대 그리스 이후 철학자들이 거듭 주장했듯이 이미지는 유령과 같은 것이었다. 실체와는 달리 나타났다 사라지고 일정한 속성과 형태로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빛에 먼 눈, 소리에 잘린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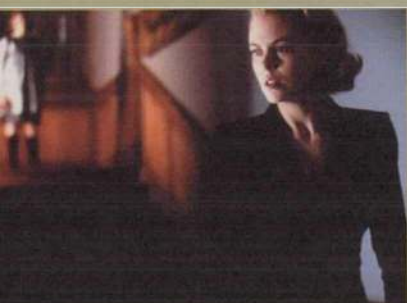
빛과 소리의 예술인 영화는 이미지 자체가 존재조건이자 표현의 수단이기에, 이러한 공포의 이미지를 응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영화관람은 사방이 어둠에 잠긴 관람석에서 백색의 화면에 비치는 화면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과 같다. 마치 완벽한 암흑을

품고 있는 동굴에 갇힌 인간이 출구를 찾기 위해 한 줄기 새어나오는 빛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동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박쥐의 날갯짓에도 화들짝 놀라듯이, 관객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리나 이미지의 파동에도 '저곳에 타자가 있다'라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관객은 정작 그 타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으며,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상상력만이 이리저리 화면 속을 떠돈다.

최근 개봉했던 <바닐라 스카이>의 원작 영화였던 <오픈 유어 아이즈>를 감독한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의 <디 아더스(The Others)>는 바로 '공포=이미지'라는 공식을 유감 없이 증명한 작품이다. 공포의 힘이 이미지에 감추어 있음을 알고 있는 감독은, 영국 채널 제도의 한 대저택에 세밀하고 꼼꼼하게 소리와 조명을 배치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등장인물들을 완전한 고립 속으로 밀어 넣는다.

타자는 누구인가?

등장인물이 그렇듯이 관객이 체험하는 것도 빛과 소리가 야기하는 수수께끼 같은 자극성이다. 그것은 곧 영화가 선사하는 가장 순수한 시청각적 경험이기도 하다. <디 아더스>는 마치 히치콕의 <레베카>를 연상시키는 듯한 암울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에서 독특한 변주를 가한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리고 조명은 반드시 희미한 촛불만을 켜 놔야 한다. 이러한 독특한 설정을 바탕으로 감독은 몇 번의 복잡한 반전을 가하여 관객의 두뇌를 헝클어뜨린다. 과연 이 모든 공포의 이미지와 연루된 타자(디 아더스)는 누구인가? ↓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 - □ □ □

공군지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이나 공군에
바라는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독 자 엽 서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보내는 사람
이 름
소속(주소)
전화번호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흥과장)
발 신 :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로! 퍼즐로! 정답]

월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T호 6231-7, 02)506-6231-7



과유불급 (過猶不及)

제1전투비행단 중령 이 면 우

우리가 욕망이나 욕구를 가득 채우고 자만할 때 우리에게겐 잃는 것만 남는 것이고, 이에 반해 겸손한 삶을 견지할 땐 무엇인가 보태지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논어(論語) ‘선진(先進)’편에 나오는 말씀이다.

공자의 제자 중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자공은 유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 자공이 어느날 스승인 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선생님, 사(師:공자의 제자인 子張의 이름)와 상(商:공자의 제자인 子夏의 이름)은 누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자공은 다시 “그렇다면 사가 더 낫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라고 하였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장은 재주가 높고 뜻이 넓었으나 구차히 어려운 일을 좋아했으므로 항상 중도(中道)에 지나쳤고, 자하는 독실한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삼가 지켰으나 그 규모가 협소했으므로 항상 미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공자는 제자 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나은 것이 없이 같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곧 공자가 추구한 중용의 도(中庸之道)를 잃었다는 점에서 같다고 본 것이다. 무릇 유가(儒家)에서 추구하는 도(道)는 중용을 그 극치로 삼는다. 얼핏 생각하면 자공의 물음대로 뛰어난 자의 지나침이 어리석은 자의 부족함보다 더 나을 것 같지만, 두 사람 모두 중도를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손겸익(滿損謙益)’은 하늘의 도리를 말한 것이다. “덕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라 먼데까지 이르지 아니함이 없나니, 자만함은 곧 손해를 부르는 것이 되고, 겸양하면 이익을 받는다(滿招損하고 謙受益이 時乃天道니이다).”는 것으로 그것은 곧 자연의 이치요, 하늘의 도리라는 것이다.

조금은 어렵게 생각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욕망이나 욕구를 가득 채우고 자만할 때 우리에게겐 잃는 것만 남는 것이고, 이에 반해 겸손한 삶을 견지할 땐 무엇인가 보태지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나친 재주로 과욕을 부리는 것도 안되겠지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또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여 겸양한 자세를 잃는다면 더더욱 올바른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선물 사러 가는 길

방송작가 김 은 희

연말연시를 한번 거치고 나면 통장에 뱅~하니 구멍이 뚫리곤 한다. 1년 열두 달 가족, 친구, 옆 사람, 앞 사람 하나 신경 안 쓰는 무심한 성격인지라 마지막 순간이나 첫 순간에 후한 인심 한번 베푸는 것이다. 이를테면 무마용 선물이다. 그 동안 미안했고 앞으로 잘 봐달라는. 그런데 그 한번의 무마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만만찮다. 뭘 사주면 상대가 좋아할지 고민하는 사려 깊은 성격조차 못되는 탓에, 그냥 영등포 지하상가나 백화점 한바퀴 휩 돌면 그뿐이다. 그러다 보니 나가는 돈은 커도 별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난 연말에도 영등포 지하상가를 떠돌았었다. 선물을 전할 이들의 목록을 손에 들고서, 역시나 같은 곳을 빙빙 돌아도 제대로 건지는 건 없고, 만날 시간은 다가오고, 별게 다

초조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다. 가끔은 '딱 좋은' 것 앞에서 서성이기도 했다. 어마어마한 거금을 과감하게 꺼낼 용기도 없으면서, 동그라미 다섯 개가 붙은 어느 폴라티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서던 순간이었을까. '선물'에 대해, 무지하게 화가 났던 것 같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선물을 사야 하는데?

세상에 아직 참 아름다운 선물들이 많은가 보다. 머리카락을 잘라 시계줄을 사고 시계를 팔아 빚을 사는 스토리아 더 이상 감동을 주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아직 사람들은 영화 '선물'의 신파에 눈물짓고는 하지 않던가. 내 취향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런 선물을 받게 된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누가 알까. 영등포를 두 시간째 떠돌던 그 날, 난 기어이 어떤 '선물' 하나에까지 생각이 미쳤다.

소년과 소녀는 열살, 동갑내기다. 1년간 둘은 같은 반이었지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지 않는, 이를테면 '따로 노는' 아이들이었다. 소녀는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모범생이었고 소년은 지지리도 공부 못하는 아이였다. 다만 소녀의 아버지는 실직



자였고 소년은 아예 아버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비슷하다면 비슷할까. 정작 서로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그렇게 한 반으로 1년을 지낸 후 겨울방학, 소녀는 상가건물 2층 구석진 방에서 하릴없이 거리구경을 하고 있었다. 내내 찌뿌둥한 하늘에 살을 에는 찬바람만 부는 추운 겨울날. 그날 따라 지나가는 행인도 별로 없어 심심하던 차, 잠시 후 소녀의 눈이 그만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크게 떠보기도 했다. 저 아래, 한 손엔 구두 한 켤레를, 다른 한쪽 어깨에는 구두통을 메고 걸어오는 아이의 모습. 모자도 없이, 장갑도 없이, 목도리도 없이, 허름한 바지와 얇은 외투를 입은 채 어깨를 움츠리고 걸어오는 한 소년. 소녀는 못 볼 것을 본 사람 마냥 서둘러 창문을 탁 닫은 뒤 휘리릭 커튼을 쳤다.

그 뒤로 가끔씩, 소녀는 저 아래 한길을 오가는 소년을 보았다. 구두를 한꺼번에 팔에 안은 모습일 적도 있지만, 대개는 몇 번을 오가도 계속 빈손일 때가 많았다. 소년이 구두를 품에 안은 날엔 이유 없이 뿌듯했고, 빈손으로 힘없이 걸어가는 소년의 뒷모습에 마음이 싸해지기도 했다. 눈보라가 치는 날엔 괜히 하늘이 미워졌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날엔 괜시리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오래도록, 소녀는 소년을 지켜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뿔싸, 소녀는 그만 딱, 소년과 길가에서 마주치고 말았다. 그렇게 조심을 했지만, 친구집에 다녀오는 길에 그만 방심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딱 마주치는 순간, 소녀는 어쩔 줄 몰라했고 소년은 초점 흐린 명한 시선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다시 각자의 길로 엇갈려 걸어간 후, 소녀는 다시는 소년을 그 거리에서 볼 수 없었다. 그 거리 어디에서도 두 번 다시 구두통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소년은 겨울방학이 끝난 날, 선물 하나를 받았다. 아니, 받았다기보다 '발견했다'. 책상서랍 속에 들어있던 울긋불긋한 포장지로 싸인 꾸러미 한 개. 수신인 이름만 또 박도박 적혀 있을 뿐, 도무지 누구의 실수인지조차 알 길 없었다. 잠시 두리번 두리번, 그러다가 다시 쳐다보기.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 줄 이 없는 교실의 구석진 뒷자리. 소년은 오래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조심조심 꾸러미를 열었다. 그리고 소년의 손에 들려진 장갑과 목도리. 어설픈 뜨개질 실력이 드러나는 장갑과 목도리.

이번 연말연시라고 크게 달랐으랴. 아버지, 어머니, 두 명의 언니와 형부들, 1년 새 붙어난 아이까지 모두 다섯 명의 조카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음이 분명하다. 겉으로야 물론 온갖 감탄과 감격의 연속이지만 내가 바본가. 아버지는 붉은 계열의 모직 체크남방을 시큰둥하게 쳐다보셨고 어머니는 머물러 재질이 영 못마땅한 듯 했다. 아직 어린 내 조카는 겨울용 내의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일부러 새 오리털파카 색깔에 맞추어 건넨 스웨터를, 내 동료는 지금도 잘 입지 않는다. 역시 난, 선물로 선심 사는 체질은 못되나 보다.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아닌 다른 어떤 사람. 늘상 새벽녘이면 나타나 조용히 편집실과 사무실을 한바퀴 돌고 사라지는 한 아주머니. 날카롭고 예민한 방송쟁이들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조심, 죄지는 사람 마냥 살그머니 나타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오십줄의 아주머니. 나는 이번 겨울이 가기 전, 그 아주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



책과 함께 사는 두 가지 방식

KBS 사회부 기자 이진성

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양서로 소개된 『갱이부리말 아이들』(김중미 지음, 창작과 비평사 펴냄)이 몇 주째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가 하면 종합 일간지들도 주말만 되면 이른바 '북섹션'을 통해 각종 신간서평을 쏟아 놓는다. '책의 르네상스'라고까지 불릴 수는 없겠지만 책의 위기라는 혐의는 벗어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책에 관해 쓴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다치바나 다카시 지음, 청어람미디어 펴냄)와 『서재 결혼시키기』(원제: EX LIBRIS)(앤 패디먼 지음, 지호 펴냄)가 눈길을 끈다.

하나. 책에게 말하다.

책이 지식의 보고라 믿는 이들에게 다카시의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는 전범으로 읽힐 만하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은 책에서 얻은 지식을 그러모아 30여년 동안 새로운 책을 써내고 있는 다카시는 스스로를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 혹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책을 통해 살살이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 소개했다. 건물 전체가 온통 책으로 쌓여 거대한 서가로 만들어진 그의 3층집 '고양이 빌딩'을 아는 이들은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둘. 책과 말하다.

혹시 다카시가 적어도 책에 관한 한 '르네상스적 인간'이란 생각보다는 책이 주인인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신세라는 생각이 드는

이들은 패디먼의 책을 선호할 것이다. '서재 결혼시키기'. 우리말 제목에서 야릇한 상상을 떠올릴 수 있는 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에게 책이란 읽어 그 내용을 소화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물리적인 책 그 자체를 다른 사용가치를 지닌 물건처럼 지니고, 사랑하고 나아가 함께 부대끼는 대상이다. 그는 책을 읽기도 하지만 책과 함께 '살아간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읽을 것인가?

이 둘을 읽노라면 '삶이 곧 책'이라는 말이 떠오르지만 그 의미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책의 입장이 돼 생각해 보자. 무차별적으로 새로이 읽어 치우는 다카시는 책에게 필요에 따라 만나는 계산적인 연인으로 다가간다면, 같은 책을 다시 읽는 패디먼에겐 헤어지되 언젠가 다시 만날 여지를 남기는 애절한 연인이다. 지금까지 기만 권의 책을 족히 읽었을 법한 다카시에게 애서가의 훈향보다는 자료수집가의 냉기가 느껴지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프래그머티즘의 세례를 물씬 풍기는 다카시의 독서론(속독법을 몸에 익혀라/새로운 정보는 꼼꼼히 체크하라/주석을 빠뜨리지 말라)을 보노라면 그 조급증과 강박에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다(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

그대, 책을 읽고 있다면 그 방식은 다카시와 패디먼, 둘 중 어디에 가까운지? ➡



봄을 기다리는 2월에

73기상전대 중령 염영경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배가 오면은 임도 타겠지/임은 안 타도 편지야 타겠지/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동지선달에 얼었던 강물도/제멋에 녹는데...’ (김동환 『강이 풀리면』) 아스라이 사라져 가는 기나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2월은 우리에게 그리움과 희망을 한없이 갖게 해준다.

2월에는 대륙성 고기압은 약해지고 날씨변화가 많아져 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을 조금 급하게 한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 최고기온은 6도로,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는 것을 피부

로 느끼게 된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수량은 37mm로 조금씩 늘어나지만 아직 큰비는 기대하기 힘들어 겨울 가뭄은 이어진다.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는 물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수도꼭지를 두 개 사용한다고 한다. 하나는 바닷물을 사용하는 일반용, 하나는 꼭 필요할 때만 쓰는 식수용이다. 우리도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이다. 최근 가뭄이 지속되고 댐 저수율도 낮아 물부족이 심해지고 있으니 절수운동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야겠다. 절기로는 봄을 상징하고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입춘(立春)이 4일이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수(雨水)가 19일이다.

입춘이 지나면 동해동풍이라 하여, 차가운 북풍이 걷히고 동풍이 불면서 얼었던 강물이 녹기 시작한다. 입춘은

우리 조상들에게 일년 농사의 시점(始點)이었다. 여자들은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 내고 남자들은 겨우내 넣어둔 농기구를 꺼내 손질하고, 소를 보살피고, 재 거름을 재워두는 등 농사를 준비했다. 또한 입춘 때 내리는 비는 만물을 소생시킨다 하여 모두가 반겼다 한다.

2월, 희망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형제, 친구, 선후배에게 그리움과 사랑의 편지를 보내드리는 것은 어떨는지. ☺



‘금연성공’ 방법에 달려있다

공군본부 의무감실

연초에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게 되나 금연에 성공하는 확률은 매우 낮다. 왜 이렇게 담배 끊기가 어려울까? 이는 니코틴 금단증상이 심한 탓도 있지만 금연전략을 잘못 세운 데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럼 성공적인 금연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흡연욕구를 차단하라 :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몸에 배도록 행동요법을 훈련해야 한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매번 메스꺼움을 느끼도록 빨리 피우거나, 흡연시 기침·두통·입냄새 등을 떠올린다. 한편으론 담배를 꺼낼 때마다 가래가 줄고, 입냄새도 사라지고, 담배 살 돈으로 음반·옷 등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흡연의 숨겨진 이유를 찾아라 : 언제, 어디서, 왜 담배를 붙였는지 분석한다면 그런 시간과 이유들에 앞서 대처방법을 세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담배 피울 때마다 흡연 분석표를 작성해야 한다.

니코틴 대체요법을 써라 : 흡연은 니코틴에 의한 중독이다. 따라서 금연을 하게 되면 금단증상이 반드시 나타난다. 금단증상은 금

연 후 2~4일에 가장 심하며 대개 2~4주간 지속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니코틴을 외부에서 공급하여 금단증상을 줄여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가능한 니코틴 대체요법은 ‘니코틴 패치’이며, 작용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팔·가슴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돌아가면서 붙이면 된다. 사용기간은 대개 6~8주이고, 이를 통해 금연성공률을 대략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약물의 도움을 받아라 : 항우울제로 쓰는 ‘부프로피온’ 계열 약물은 줄어든 니코틴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을 줄여준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금연을 목적으로 유일하게 승인한 비(非)니코틴 제제이다. 이 약물은 금연하는 사람에게 안락감을 주고 담배를 피우려는 충동을 감소시킨다. 대개 니코틴 대체요법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적합하나 둘을 같이하면 더 좋은 금연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약물이 효능을 발휘하려면 1주일 가량 걸리므로 담배를 끊기 전에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 약물요법과 니코틴 대체요법은 금연행동조절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래야 금연효과가 확실하다. ㉠



법무상식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공군본부 법무감실

원격대학 재학생 및 의과대학원 재학생 입영연기

평생교육제도에 따라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원격대학 재학생에게도 입영연기 혜택이 주어진다. 대학원 재학생의 입영연기 연령 상한을 현재 4학기제 만 26세, 5·6학기제 만 27세에서 모두 28세로 상향조정.

민원발급과정 개선

현재 호적, 등초본 등 27가지 민원서류만 인터넷상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지방세 납세증명, 장애인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등 20여 종의 민원서류가 추가적으로 가능. 또한 무인 민원발급기 취급서류는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 등 10종에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보험대상자증명 등 15종이 추가.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서비스 개시

1월 2일 157개 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열람을 시작으로 9월 이후에는 전국 모든 등기소로 확대(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참조).

무상교육 확대

전국 중학교 신입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이 전액 면제되는 등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 또한 저소득층 만 5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유치원비가 면제되거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조금 지급.

육아 관련 휴가, 휴직 보장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출산 전후 60일에서

90일로 변경.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3세 미만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선(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남녀차별 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사항의 이행을 명령받게 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확대지정

종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부중앙청사,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 등은 원칙적으로 건물내 금연(절대금연건물제도)으로 바뀌어 흡연구역이 사라지며 PC방, 만화방, 일정규모 이상의 실외경기장, 음식점 등에서도 금연구역 확대.

비행기내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 폭행 등의 난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처벌조항 신설. ⚡

진두태(陳斗台) 해병 중위



1927년 경남 함안 출생. 1951년 3월, 태백산맥을 따라 후퇴만 거듭하던 북한군은 부대를 재정비한 후 하진부리 남동쪽 박지산(1391고지), 발왕산(1458고지) 방면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에 해병대 제1연대는 발왕산과 박지산 동쪽의 봉산리를 점령하여 적의 진출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월 8일, 1연대 제3대대 수색소대장인 진두태 소위는 박지산을 수색, 적정을 정찰하던 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전원후퇴, 즉각 철수하라'는 명령만 하달하고 혼자서 수색대의 철수를 엄호하다 장렬히 산화하였다. 진두태 소위에게는 사후 1계급 특진과 함께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김환기(金煥基)



1913년 전남 신안 출생. 서양화가이자 우리나라 모더니즘의 제1세대. 한국적 정서를 양식화한 독특한 예술세계를 확립하였고 주요작품으로 『론도』, 『산월』 등이 있다. 김환기는 1930년대 후반 일본화단의 전위적 단체인 자유미술가협회전 창립에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인 모더니즘 운동을 전개했다. 해방 후 1947년에는 신사실파를 결성하여 모더니즘의 계보를 형성하는 한편 후진 양성을 위해 힘썼다. 1963년 미국 뉴욕에 정착한 이후 1974년 작고하기까지 뉴욕 화단에서 활동하였다. 만년에 그의 작품은 선, 점, 면에서 화면 전체가 점들로 채워지는 이른바 점화의 세계를 보여주는 독특한 화풍으로 발전하였다.

한 훈(韓 焄)



1892년 충남 청양 출생. 악질 친일군수인 직산 군수를 사살하고 만주로 망명하였다가 경술국치 이후에 국내에서 항쟁할 목적으로 다시 귀국하였다. 1913년 대한광복단을 조직하고 1919년에는 조선독립군정서에 가입하였다. 1920년 미국 하원의원단이 내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고관들을 암살하기 위해 결사대를 조직하여 계획을 추진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8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의병활동이 발각되어 재차 23년형을 받았다. 그는 19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옥고에 시달리다 형집행 정지처분으로 출옥하였다. 6·25 전쟁 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한다.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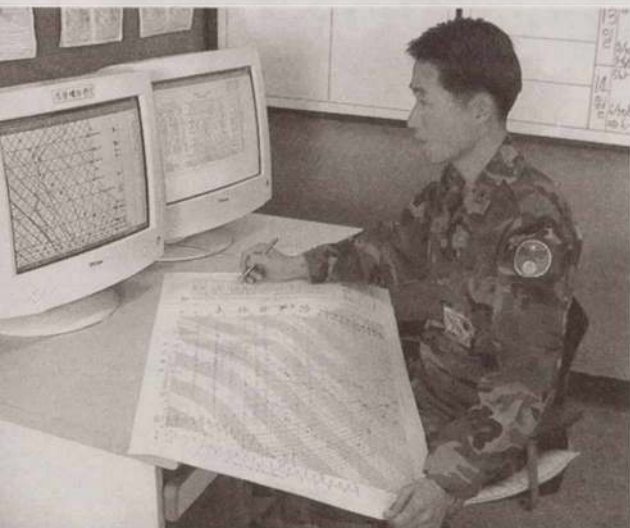
정확하게, 신속하게 100% 맞춤기상을 추구한다

- 제18전투비행단 기상대 박재홍 소령 -

제18전투비행단 중위 윤형노

“현재 내리고 있는 눈은 30분 전후로 하여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의 적설량은 10cm입니다.”

하루일과를 시작하면서 원활하고 완벽한 항공작전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기상을 브리핑하는 제18전투비행단 기상대 박재홍 소령. 이렇듯 박소령이 정확한 맞춤기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발달된 기상시스템과 임관 이후 13년 동안 기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습득한 감각이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박소령과 함께 기상업무를 담당하는 기상대 요원은 약 20여명. 이들은 ‘공군 기상정보시스템’에서 송신되는 각종 위성사진, 구름사진 등을 판독하여 실시간으로 기온, 운고, 적설량 등을 파악하여 항공작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상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적 특성상 예상치 못한 폭설상황에도 대비한 맞춤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상태를 제설작업팀에 제공하여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작전뿐만 아니라 민항기 비행에도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고 있다.

최종판단은 기계가 아닌 인간의 몫

지난 1959년 미군이 운영하던 항공기상 관측업무를 인수하면서 시작된 공군의 항공기상업무는 지상, 해상, 육상, 우주로부터 기상자료를 수집, 분석/가공,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전 공군비행단에 실시간으로 기상자료를 전달하는 ‘공군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이르기까지 발전하였다.

또한 국내 및 국제규정에 근거하여 항공운수사업의 실시간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상지원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정시성, 경제성 확보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기상업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항공기상업무는 발달된 기상장비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최종결론은 결국 인간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박재홍 소령을 비롯하여 오랜 경험과 예민한 감각을 바탕으로 고난도의 기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제18전투비행단 기상대 요원들은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제 소리 없이 오는 눈은 없다. ⚡

명예와 군기의 표상

- 헌 병 병 과 -

공군본부 공보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잠들은 새벽 2시 30분. 이 늦은 시각에도 완벽한 경계근무 임무완수를 위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밤을 지새우는 보라매들이 있다. 바로 공군 부대의 정예 헌병들. 헌병대대 소대와 경비초소는 이 시간 때면 근무 상하번 교대로 그 어느 때보다 패기와 박력이 넘친다. 부대 외곽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초소는 부대 창설 이후 단 하루도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오늘도 경계근무를 위해 환히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음지에서 묵묵히 굳은 일을 도맡아 하지만 조국 영공방위 임무완수의 밑거름으로써, 기지운영과 단체생활을 위한 계도(啓導)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헌병인들을 찾아가 보았다.

영예로운 레인저 마크를 위한 끝없는 훈련

헌병 특기가 하는 일은 단순히 기지방어 및 경계임무만이 아니다. ▲군기유지와 단속

(군기단속·위반자 처리·교통정리·행사지원·검문소 운영) ▲범죄예방과 수사 ▲영창운영과 관리 ▲경호경비와 호송 등과 같이 군기가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는 부대 운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헌병인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사령부 내에서도 엄격하고도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다. 병사들의 경우 3주, 부사관의 경우 6주, 장교의 경우 5주의 초급과정을 각각 이수하게 되는데 교육과정에서는 기본군사훈련을 토대로 기지방어와 군 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화기학, 헌병무술, 기지방호, 영창관리에 대해 배우게 된다.

화기학에서는 K-3, K-6와 같은 중화기를 비롯 K-1, K-2 같은 소총과 권총 등의 제원 교육뿐만 아니라 실전적인 사격도 실시된다.

이 밖에도 범인검거 등에 필요한 헌병인들만의 헌병무술과 포승법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헌병무술에는 낙법과 태권도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반복 숙달훈련으로 전투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헌병특기는 교육수료 후 가슴에 영예로운 레인저(RANGER) 마크를 달고 자랑스러운 헌병인으로 거듭나게 되며 예비부대로 배치 후 장병들의 적성에 맞게 기지방어요원, 영창관리요원, 수사요원, 행정요원 등으로 나뉘어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대 배속 후에도 실전을 능가하는 강도 높은 교육훈련은 지속된다. 기지방어 상황발생시 적과 최초로 교전해야 하는 만큼, 평소 실전과 같은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한 전투능력 향상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병대대 장병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총검술·태권도·구보·사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강인한 체력과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과정을 거쳐 각 소대 및 부서에 배치된 병사들은 각각의 부서 특성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헌병의 임무 성격상 스케줄에 따라 24시간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어려운 근무조건, 그 속에서 느끼는 자부심

강인한 헌병인들에게도 어려운 부분은 있다. 무엇보다 헌병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바로 '불규칙적인 스케줄 근무와 생활'. 다른 장병들이 공휴일과 주말에 휴식을 취할 때도 헌병인들에게 휴일이란 없다. 기지방어 임무완수에는 휴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에서도, 30도를 훨씬 웃도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헌병인들은 정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완수해야 한다. 이

처럼 365일 휴일 없이 근무를 서면서도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수면과 식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경계근무를 서는 초병들은 입초(立哨)를 서야 하는 근무특성상 무릎이나 관절, 허리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쳐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점도 있다.

공군을 위해, 부대를 위해, 타인을 위해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병인들은 자부심과 보람에 충만해 있다. 그것은 바로 헌병(憲兵)이라는 뜻 그대로 '공군을 위해, 부대를 위해,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생활 속에서의 뿌듯한 보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본인들이 수행한다는 생각, 그리고 엄정한 군기와 청렴한 명예를 지닌 본인들의 모습이 타장병들에게 모범과 귀감이 된다는 생각에 어려움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헌병인들은 21세기 선진 정예공군의 최선봉이 되기 위해 오늘도 밤낮을 잊은 채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서울에서 설 보내기

제17전투비행단 병장 김 휘 동

우리 가족은 매년 설날이 되면 할머니가 계신 서울로 간다. 다른 사람들이 혹독한 귀성전쟁을 치르며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그런 이유로 난 남들이 다 겪는 귀성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 남들이 설을 보낸 후 녹초가 되어가며 서울로 향할 때 난 별 어려움 없이 집으로 돌아 왔다.

우리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 할머니께서 서울에 계신 관계로 난 어려서부터 명절에도 시골풍경을 접할 수 없었다. 명절이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동구 밖까지 마중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 앞마당. 뭐가 그리 좋은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강아지. 따뜻한 아랫

목에서 할머니의 다리를 배개 삼아 즐기는 달콤한 낮잠. 이런 것들이 나에게겐 없었다. 하지만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 이제 제대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군인 아저씨가 돼서야 느끼는 건, 설날에 있어 중요한 것은 꼭 어렸을 적 내가 꿈꾸던 훈훈하고 소박한 시골풍경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장소와 풍경에 상관없이 가족들이 만나 서로의 정을 느끼는 것!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 올해도 나는 작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만의 설을 보내기 위해 상행선 기차에 몸을 실을 것이다. ㊦

설날의 다짐, 왕이 되는 그날까지!

제1전투비행단 이병 김 창 훈

못 버틸 것 같던 훈련소 생활도 마치고 자대 배치까지 받은 지 어느덧 2달째,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바쁘기만 하다. 그렇게 2개월이 흐르면서 올 것 같지 않던 2002년의 새해가 밝았고, 이제 난생 처음으로 군대에서 맞이하는 설이다. 이등병이라는 신분으로 맞이하는 설은 기쁨과 환희보다 군생활에 대한 각오와 오기로 다가온다. 군생활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군에 들어온 이상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나갈 것인가. 나의 머리 속은 온통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하다.

'거지에서 왕까지 - 군생활은 경험의 장이다.' 문득 책에서 본 문구가 생각이 난다. 모든 생활이 그러하듯이 처음부터 편한 것은 없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하

나 부딪히고 이겨내야 한다. 지금의 나는 거지다. 조그만 것 하나에도 만족해야 하고 참고 힘이 들고 따뜻한 집이 생각이 나도 참고 견뎌야 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조금만 참고 견디어 낸다면 비로소 그때 난 왕이 되는 것이다.

난 왕이 되기 위해 남들보다 한번 더 움직이고 더 빨리 뛸 것이다.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내 자신에 대해 더 진지해질 것이다. 조금은 두렵고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움츠려서는 안된다. 좀더 어깨를 펴고 이등병다운 모습으로 패기있고 활기차게 행동하자! 모든 이등병들이여! 우리 모두 힘내자! 왕이 되는 그날까지! ㊦

내 생애 최고의 발렌타인데이

제39전술정찰비행전대 병장 서 창 빈

입대를 몇 달 앞두고 휴학을 했던 2000년 발렌타인데이의 일이다. 나에게는 나이만 대학생이지, 행동은 초등학생 같은 여자친구가 있었다. 정말 애를 키우는 듯 연애를 하던 그 즈음 우리에게도 발렌타인데이가 찾아왔다. 난 그 동안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여자친구에게 깜짝파티를 해주려고 계획했다. 발렌타인데이 전날 여자친구에게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고, 자취방에 와서는 밤새 풍선을 불었다. 방안 네 벽과 천장에 풍선과 리본을 뽁뽁이 달고, 전에 길 가다가 그녀가 무심코 예쁘다고 했던 귀걸이도 정성껏 포장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역시나 아침에 그녀에게서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난 애써 모르는 척, 갑자기 무슨 일이냐며 단청을 했다. 그리고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자기 얼굴도 가리는 큰 바구니를 들고선 아이같이 웃고 있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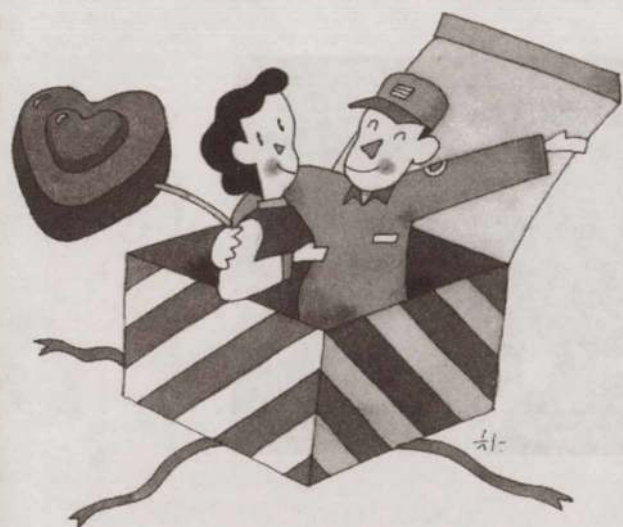
아, 바보. 자 이거. 피... 오빠는 뭐 없어? 하긴 오늘이 무슨 날이었는지도 몰랐으니... 예구”

토라진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아니라고, 몰래 준비 많이 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나중에 놀랄 그녀 모습을 생각하곤 애써 참았다. 그리고선 그녀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가게에서 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가 갑자기 이러는 것이었다. “오빠, 우리 풍선 불고 놀래? 응? 그러자... 응? 응?”

조금 있으면 네가 며칠 동안 불어도 못 불만큼 풍선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꺾 참았다. 그렇게 또 걷고 있는데, 그녀가 이번엔 어디론가 쏘르르 달려가는 것이었다. 따라가 보니 액세서리를 파는 조그만 노점이었다. 거기에 쏘그리고 앉아서 물건들을 만져보더니 “오빠, 이 귀걸이 1000원밖에 안하는데, 나 사줘. 응? 응?”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진난만하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그 자리에서 한번 꺾 안아준 다음 나중에 사준다고 타이르고 내 방으로 데리고 갔다. 내 방 앞에서, 지저분하니까 잠깐 눈 감으라고 시킨 다음 얼른 케이크에 초를 켜고 이젠 다 치웠다고 했다. 눈을 뜬 그녀는 한 동안 멍하게 서 있다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갑자기 나를 꺾 안아줬다. “자, 이거 받아. 바보는 너다. 어쩔 풍선이고, 귀걸이이고 그렇게 다 맞춰버리냐? 재미없게... 점쟁이를 해라, 차라리...”

포장을 뜯고, 귀걸이를 보더니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나에게 말했다. “오빠, 사랑해.”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던 내 생애 최고의 발렌타인데이였다. ④



월드컵대비 민간항공보안지침 제정

건설교통부는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테러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올해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리게 돼 공항 보안검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항공보안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항내 정부기관의 역할과 검색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 항공사가 시행해야 할 기내 보안 조치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와 함께 국내 항공사가 운항하는 해외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보안실태를 조사하고 보안 취약국가를 선정, 입국심사와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장애인 주차료 할인

인천공항공사는 올해부터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중증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대폭 할인했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공항내 장·단기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후 출차시 요금정산 부스에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해 주고 있다. 또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여객터미널과 가까운 단기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시간당 주차요금을 2천400원에서 1천원으로, 1일 요금을 2만8천800원에서 8천원으로 할인해 준다.

KBS, 공항소재 드라마 제작

KBS 2TV는 인천국제공항을 무대로 그곳에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과 공항 요원들이 겪는 다양한 현장 이야기와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 '에어포트' 제작준비에 들어 갔다. 그동안 항공 관련 드라마로는 MBC TV의 '썩'과 '파일럿' 등이 방송됐지만, 본격적으로 공항을 무대로 드라마를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중국어권 지



역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공항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제작돼 수출된다면 현재 아시아의 대표적인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美 항공기승무원 태권도 수련 붐

지난 해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 항공사 승무원들 사이에서 호신술 열풍이 불고 있다. USA투데이에는 미국 내에서 각종 테러에 대비해 승무원들이 호신술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권도, 유도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나이티드항공(UA)의 경우 일부 승무원들이 자신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현재 미 연방항공청은 승무원의 교육프로그램에 호신술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통부도 각 항공사에 무술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



공군사관학교 인터넷/인트라넷 학적관리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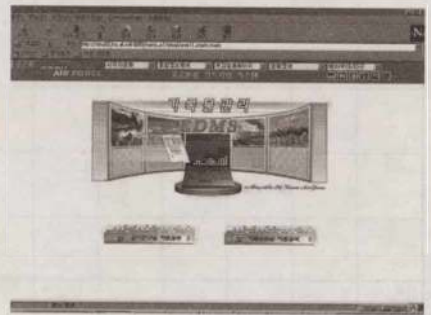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는 졸업생 및 재학생, 2사/특2사 출신의 성적증명서와 학적부 등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은 20여종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사이버공간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학적부 발급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 갔습니다. 신청 및 처리는 공군본부 및 공사 인터넷/인트라넷을 통해 모두 가능하며 발급증명서의 종류는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 총 20종입니다.

문의 : 성)6053, 호)3543

군사자료 인트라넷 검색체계 구축

공군본부 군사연구실은 창군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공군의 주요 역사 존안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개발하여 운영에 들어 갔습니다. 특히 공군의 주요정책, 제도, 통계, 편제와 전쟁 및 군 관련 도서, 정기 간행물, 주요행사, 항공기 사진 등 문서, 도서, 사진류를 망라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양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공군본부 인트라넷→종합정보체계→군역사 관리→군사자료검색 ▲예하부대 인트라넷→분야별 업무정보→군역사 관리→군사자료검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 : 호)3284



환경 우수작품 선발

공군본부는 장병 및 군무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 우수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표어, 포스터, 사진, 만화의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공모전은 부대별 예선(2~3월)과 공군본부 본선(6월)으로 구분, 시행되며 선발작품은 6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전시됩니다. 환경 친화적 공군건설을 위한 이번 공모전에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호)4672

『상쾌한 아침, 10분의 명상』 Vol. 2 발간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은 병영의 국민교육 도장화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1일 1건 병영교육' 교안 주제별 선집인 『상쾌한 아침, 10분의 명상』 Vol. 2를 제작·배포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발간된 1권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선집은 시사안보, 군인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충효예 교육, 경제·상식 교육 등 총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병들의 교양증진 및 지휘관 정신문화, 정신교육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 : 호)6216



퀴즈로! 퍼즐로!

①②③④에 들어갈 낱말을 독자엽서에 적어 2월 18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달의 문제

	1 ③	2				3	②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④			19 ①			

퀴즈로! 퍼즐로! 정답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로열쇠

- 한 해의 열 번째 되는 달
-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진술함. 기조○○○
- TV ○○○. 혹은 이영애가 선전하는 핸드폰 서비스
- 전국의 커피자판기가 이게 없으면 작동이 안됩니다.
- 미국은 지금 이 나라와 전쟁 중
- 옛날에는 OB 베어스라 불리었습니다. 2001년 프로야구 우승팀
- 음악밴드를 달리 이르는 말. ○○사운드
- 가장 미세하고 하등인 단세포 생물. 박테리아
- 지난 해 12월에 창설된 공군 수송지원단
- 프로. 엑스퍼트. 스페셜리스트
- 코마네치는 이것의 요정이지요.
- 대대에는 대대장, 비행단엔 비행단장. 그럼 사령부엔?

1월호 정답 / 상무정신(상무신정)

비	①무	장					국	방	부
디		기	념	비					사
오	장			상	부	②상	조		관
	유		대	구		아			
	유		사			탐	승	객	
	서	기	관				승		
						③신	장	개	업
페		메	주		연		구		등
트		추			병				이
병	아	리			장	④정	구		

1월호 퀴즈로! 퍼즐로!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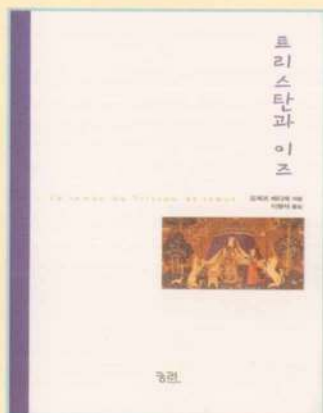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사서함 303-1 음금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여행장병안내소 이혁근
서울 마포구 성산1동 214-20 청운빌라 502 최현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성(A) 302-507호 홍지영
전북 정읍시 연지동 421-12 강경민

세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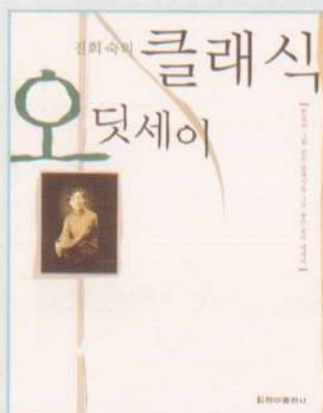
- 올해 우리 나라와 일본이 공동 개최하는 축구 대회
- 제주도 배경. 장동건, 고소영 주연의 영화. 본 사람은 별로 없지요.
- 박찬호의 새로운 팀. ○○○ 레인저스
- 기아 타이거즈의 간판타자. 바람의 아들
- 연극·영화·음악 등의 진행순서나 목록. 공연 ○○○○
- 소킹 우편물. 백색가루의 공포
- 올해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도시. 갈매기 끼룩~끼룩
-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조폭영화는 끝이 없군.
- AFKN에서 볼 수 있었던 어린이 프로. 쿠키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 스트리트
- 노래방에서 화면 가리면, 노래 부르는 사람 화납니다. 이게 안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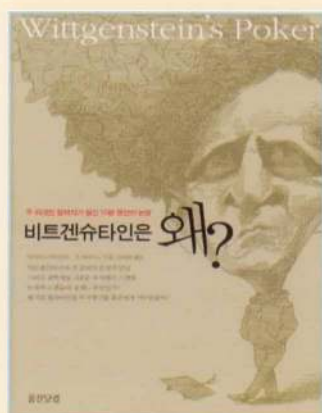
New Book



트리스탄과 이즈/조제프 베디에 지음/이형식 옮김/256쪽/궁리
궁리에서 펴내는 <프랑스 중세 고전 문학선>의 두 번째 책. 기독교 문명이 서구 중심으로 자리잡으며 이교도인 켈트족은 일찌감치 전설 속으로 사라져 버린 민족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트리스탄과 이즈'는 중세 최고의 연애문학으로 지금까지 전해진다. 4~5세기 아서왕 시대를 배경으로 '트리스탄'과 두 명의 '이즈'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극적 사랑은 중세 시인 토마스의 전언(傳言)을 통해 사랑의 원형질로 자리잡는다. "부디 모든 연인들께서는, 지극히 못한 절개, 연인의 과오, 온갖 번민과 고통 등, 그 모든 사랑의 덧에 걸려들었을 때이라도, 이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기 바라노라."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도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어졌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중세 시인들의 정감을 가장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조제프 베디에의 1900년작을 저본으로 했다.



진회숙의 클래식 오딧세이/진회숙 지음/304쪽/청아
요즘의 경량화되어 가고 있는 교양·예술서들과는 어딘가 다른 클래식 에세이. 오랜 시간 음악 평론가이자 클래식방송 구성작가로 활동한 저자의 경력이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입에 닿는 글 맛까지 세우는 생동감까지 보태었다.
사티에게서 저자의 유년시절에 있었던 음악적 반란을 끄집어내고 드뷔시에 시조와 민화를, 슈만의 귀얄이에 뭉크의 <절규>를 짝짓기하는 것을 접하다보면 웬만한 인문교양서 몇 권을 본 듯한 배부름이 느껴진다. 저자 자신의 삶이 총체적으로 투사된 듯한 목직한 느낌이 들다가도 구석 구석 흠어진 잔잔한 재미들을 훑어가다 보면 어느 덧 추천음반 한 장 내세우지 않는 저자의 속내를 느낄 수 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와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 씨를 동생으로 두고 있는 저자는 현재 KBS 위성TV에서 방송되는 <클래식 오딧세이> 구성을 맡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왜?/데이비드 에드먼즈·존 에이디노 지음/김태환 옮김/360쪽/웅진닷컴
1946년 케임브리지 킹스칼리지. 그곳에서 위대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고성을 지르며 부지깽이를 휘두르고, 급기야 청중과 자신의 적수인 칼 포퍼를 두고 자리를 뜨고 말았다. 당시 철학계를 흔들며 '부지깽이 스캔들'로 회자됐던 이 날의 진실은 누구의 편이었을까. 저자들은 단 10분 동안 일어난 이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비트겐슈타인과 포퍼라는 두 위대한 철학자의 삶과 철학을 360쪽을 뱅뱅이 채울 정도로 꼼꼼히 재구성한다. '역사와 철학, 추리문학이 결합된 흥미로운 저작'이라는 평답게 철학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인내만으로도 한없이 어렵기만 한 두 학자의 철학적 지점들이 슬금슬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리소설 같은 구성과 다큐멘터리식 프레임은 이를 위한 서사적 장치. 과연 그 날의 진실은, 아니 좀 더 솔직하자면 그 날의 승자는?

창공을 날다

질푸른 창공
조국의 하늘 아래
비장한 다짐은 수직으로 향하고
장엄한 용기가 담긴 기체는
하늘을 뚫는다

맥박치는 태극의 혼(魂)
조국애의 뜨거운 가슴
그들의 흔적으로 수놓아
성운(星雲)처럼 가슴에 쏠려온다

생명을 건 환희를 두고
“빨간 마후라의 목숨 믿지 말라”던 말
접어둔 무거운 가슴은
들리지 않는 기도로 절박하더라

빨간마후라여!
장부(丈夫)의 뜻 거친 숨결로
애기(愛機)와 함께
영원하여라

시인 정호자 / 나채성 예비역 소령(조종12기)의 부인

